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0回平昌郡議會

第 3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6年 6月 7日(金) 10時00分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1. 郡政에 關한 質問

附議된 案件

1. 郡政에 關한 質問(繼續) ————— 2 面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6일간 양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체전참가 선수격려와 현충일 행사

참석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의정단상에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에 이어 오전에는 세분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두경의원, 우강호의원, 김종영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1. 郡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3分)

○ 議長 金樂雲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일부 질문을 하고 오늘 3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질문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측량신청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축물의 노후및 협소로 인하여 주택의 신축.중축.개축등의 물량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 대지등의 문제로 측량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 지방자치 단체인 행정기관에서 민원 위주로 처리하여 불편을 줄여 행정

의 신뢰성을 높여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정규모 100㎡이하의 건축물의 업무는 읍면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처리 함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지 문제가 발생 될때는 일개군에 하나 밖에 없는 대한지적공사 평창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관련 주민이 직접 가야지만 측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함으로 군청 소재지에 있는 지적공사까지 다녀오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며는 업무가 다소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민원인의 대지등 건축물의 관련 측량 신청이 필요할 때 민원인을 대신하여 지적공사 전화로 필요한 측량을 하고 측량수수료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온라인으로 입금토록하여 필요한 측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청함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경비를 줄이게하여 좋은 반으로 주민편에 서서 펼쳐나가는 행정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평창군과 지적공사 평창출장소가 협조 제도화 되어 읍면에 실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봉사행정을 추진 하여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을 높여주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조례,규칙 훈령등을 재검토 연구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정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건물소유자의 무지 또는 번지 개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의 번지가 없거나 실재 위치와 상이한 번지가 기재되어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물 노후 및 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건물의 중.개축시 번지 불일치로 현황 측량등의 경비부담 가중 (건당 30~40만원 소요) 및 시간, 인력 낭비로 인한 민원 야기가 발생하여 행정불신 초래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본바 건축법 29조 2항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건설부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은 건축물 소유자가 기재 변경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항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건축물 소유권을 제외한 건축물 대장상의 모든게재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규정의 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직권으로 일제 정리 함으로서 민원의 시간 및 비용절감은 물론 주민의 수혜 증대를 위하여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다음은 봉평면 문화마을 육성 발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출생지인 봉평면 창동4리 생가 지역 마을은 1990년 6월 13일 당시 문화부(이여령 장관 재임시)에서 문화마을 1호로 지정 받아 문화비 생가터비 건립과 물레방아 복원사업 공원 조성등 소규모 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면민이 바라는 바는 전통성 있는 문화마을로 면모를 갖출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근대 문학의 선구자인 가산 이효석 문인의 관광 명소로서 부각 시킬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 합니다.

본 지역에 연간 방문객이 약 1,200여명 이상 찾고 있는 실정에 진입 도로 연건이 좋지않고, 생가 복원 및 주변 환경이 규모있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의 불편은 물론 실망감 마저 주고 있는바, 일부지역을 문화마을 보존에 대한 경관 조례제정을 정비하여 가산의 얼을 선양하고 전통문화 고장의 이미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문화마을 환경 보전지구로 육성하여야 되겠다고 판단되며, 유일하게 문화마을로 지정 받은 소설의 무대인 본지역을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등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樂雲 : 김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강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康鎬 議員 : 진부면 출신 우강호 의원 입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에서는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우리 평창군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위 부상을 위해 평창군 체육회에서 많은 신경을 쓴것 만큼이나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로 온 정열을 쏟으며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치루어진 육상경기장에서는 차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

니다. 평창군 대표선수들의 유니폼이 도착되지 않아서 평상시 선수 본인들이 연습할때 입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웃지 못할 해프닝 아닙니까?

선수들 관리 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며, 그런것 마저 확인하지 못한 담당자들과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워낙 빈약한 재정의 평창군이라 예산이 부족해서 유니폼을 입히지 못한 탓으로 돌려 버리고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요지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질문 내용들이 상세하게 집행부에 전달되어 있을 겁니다.

또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집행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나 예산내용을 주민이나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해 주어서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 전에 의원님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처세를 지적하며 추후 이러한 문제로 두번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 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소득 10,000\$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고방식이나 의식, 관행은 아직 구태의연하여 국민소득 1~2천\$ 시대 옛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함은 내일이라는 희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동안 평창군 행정은 군립하고 지배하는, 획일화, 단순화, 경직화, 박제화된 행정 투성이었고, 직원들 사이에는 좌불안석, 면중복배등 갖가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부도 군부시대에서 문민시대로, 집행부도 관선시대에서 민선자치시대로 변했으며, 경제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어 가고, 행정주도나 행정강압, 행정 만능에서 벗어나 군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군민을 도와 주고 협조하며 불편하지 않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행정의 실명화 시대로 의식과 관행이 바뀌어야 겠고, 소위 군의 책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밑의 담당 직원이 써주는 대로 읽는 앵무새 같은 대독 답변, 답변하기 곤란하면 동문서답식의 편청 답변, 중요하고 핵심적인것은 건너뛰고, 지엽적인것만 답변하는 구령이 답변식의 말 잔치식 구태는 사라져야 됩니다. 할수 있으면 하겠다,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할수 없으면 못하겠다라고 답변자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촉구 합니다.

진실로 그동안 우리 의회의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수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얼마나 진지하게 개선 할려고 노력하였는지 증거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군정질문이 통과 의례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렀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면서 그 책임을 통감 합니다.

평창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5만군민의 심부름꾼이요, 공복입니다.

머슴이 주인을 능멸하고, 얹잡아 보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와 평창군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자세로 노력 하면서 앞으로 있을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생산적인 답변을 요구 합니다.

첫째, 평창군수의 군정 수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로서 1년가까운 재임기간 동안 군정수행의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실행할 것과 못할 것들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이행치 못한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함께 실천 의지를 묻고저 합니다.

또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대부분의 시군이 직제개편안을 마련 주민편의 행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행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군의 효율적인 직제 개편에 관한 군수의 의지는 무엇인지?

평창군의 인사관계(승진,전보)및 직위해제로 인한 많은 주민 여론 및 언론의 질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비생산적인 업무수행과 의욕상실, 무사

안일을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공무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돈보다는 명예를 택한 사람들로서 진급과 직책은 사명감을 북돋우고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바쳐 봉사, 희생하였지만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현재의 자리에서 전보 되었을때, 그 파급효과와 소외됨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 올것인가?

군수가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인간관계로 인사를 하는 사례가 없는지,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진 인사인지?

군수 독단으로 인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인사는 정말 능력 위주고 진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창의적인 능력과 기량을 한껏 발휘하여 보다 살기 좋은 평창군 건설에 앞장서

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주민 관계를 할 수 있는 소양은 군수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장학회 기금 5억원을 농협군지부에 예치 관리해 오다가 최근 평창축협으로 이전 예치하게된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CD는 양면성 있다고 보는데, 군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CD로 예치 한다면 다소 높은 이율은 증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창군 자체 군민에 대한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평창군의 전체 조례, 시행규칙 지침을 재 검토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조례, 시행규칙 지침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 각 항별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둘째, 인사 상별 위원장인 부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전

보, 처벌(징계) 등에 관한 인사 상벌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축산과장(정의수) 직위해제 문제로 인한 위원장의 견해와 위원들의 결정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도 이러한 사항들의 중앙지를 비롯 지방지 신문에 TV 뉴스에 수차례 게재, 방영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도록 창피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셋째, 진부 광역상수도의 부분 준공이 늦어진데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완벽한 공사로 주민들이 수돗물 걱정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 것이며, 부도업체에게 계속 시공을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넷째,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중 주택사업, 주택개량, 자체신규사업중 근로자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에 3,500만원의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이 평창군이라 하여 하자보수차원에서 수리를 해 줄려고 하는데, 그럼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하자 보수를 하여 줄 것인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억2,0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하면서 하자보증금 3%를 예치시키지 않았다면 어느누가 이해를 하겠으며 이러한 관리감독 소홀로 군비를 낭비 시켰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지 책임의 한계성과 보수비 책정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축산과 추정 예산중 축산행정의 자체사업으로 축산물 등급 판정 기반시설비로 1억4,984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 하므로써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평창군의 세수증대는 얼마나 더 기대 되는가?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 의혹이 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여섯째, 진부시내가 주차장화 되어 있고 비만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마저 있는것이 현 실정 입니다.

진부 시가지 정비 계획과 하수도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설계는 되어 있는지, 조기에 착공하여 민민의 숙원을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숙원사업의 예산편성시 설계의 적정성과 다수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인지의 검증 여부를 판단해 보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지, 일부 특혜 의혹이 있고, 선심성이 있는 사업은 혹 없는지, 만일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때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30조4항 및 제1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6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이 착공도 하기전에 사업물량의 변경이 초래되어 당초 예산 보다도 많은 추경 예산을 군

비로 투자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이나 예산편성시 보다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추경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현안사업등에 모든 가용재원이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하지 않는 자체신규사업들이 무계획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선심행정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중 주요자체신규사업 예산은 70억 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솔잎혹파리방제 수단주사 및 임도시설피해 보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만 솔잎혹파리방제와 수단주사를 실시하여 전시행정의 진면모를 보여 주고 있으며, 다시 도로공사 확장으로 인하여 솔잎혹파리방제 및 수단주사를 실시하여 살아남은 나무마저 벌채를 해

야 하는등 철저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실시한 임도시설 피해복구사업 추진 및 집중호우에 대비할 대책은 있는지? 상월오개리 임도시설의 경우 강원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직영 피해복구를 실시 하였는데, 의원들의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확인 되었지만,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게 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공사라면 누가 정부나 우리 평창군을 믿고 그 행정을 신뢰 하겠습니까? 그 현장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피해 복구입니다. 얼마나 피해복구 현장에 확신이 없으면, 본 의원이 복구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을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무려 15일전에 했습니다.

공휴일 제외하고도 11일이나 되는데 도면이나 내역서가 춘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늘 이시간까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춘천이 여기서 얼마의 거리며 몇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끝날때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수원보호 절대구역의 수질오염 업소 및 건축물등에 대한 오수정화 시설, 폐기물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상수원 인접지역의 건축물 허가를 가급적 지양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옛날 수량이 많았을때 정해진 자전 정화 거리가 5Km 였는데, 지금도 역시 그 거리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수량이 많지 않아 겨우 물이 흐르는 정도 인데,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시설들이 그위에 있다면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수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촉구
드립니다.

열번제, 비료, 계분 농약등의 불법유통
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산업폐기물등
이 섞인 계분 및 돈분, 기타 축분들의
유입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 할뿐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산업폐기물이 섞여 있
는 축분등이 관내에 들어와서 환경오염
마저 심각한 상태인데, 유통구조개선과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차단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제, 평창군의 복지정책과 관련하
여 생활보호대상자 및 중증장애인등 중
점적으로 보호 관리 대상 인들에 대한
전세금 및 자립자금 용자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뻘히 알면서도 혜택을 받
지 못하는 그림속의떡 같은 현실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들에게 자금

용자시 평창군이 보증을 서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보증인을 대치할 의지는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가뜩이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주시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고루 잘 살며 모두 함께
하는 복지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두번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비지정
관광지 요금 징수 일자를 변경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산불조심기간인 5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인들의 산나물 마구 채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기타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아주작은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믿음이 가
고 지역주민의 편에서는 집행부의 면모
를 보여 줄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촉구 합니다.

열세번째, 진부면 마평1리 청심대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심이의 가련한 지아비 섬김을 기리기 위하여 동리의 어른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입수하여 가능토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네번째, 집행부에서 물품구매시 지역적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조달 물자가 아닌 현지 주민 구매를 하여 고루 잘사는 평창군 경제에 이바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공사 업체중 부실시공을 한번이라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시 제외 규정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확인한바, 부실시공을 하여 재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단호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열여섯번째, 국유림과 군유림내 광산허가시 지역경제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데, 차후 광산허가를 불허할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관내에 8개 업체의 광산이 있는데, 지방세는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자연 산림을 최고로 사랑하는 평창군의 산림보존차원에서라도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다시 한번더 집행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 합니다.

열일곱번째, 내고장 상품 구매촉진실적과 기업유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내고장 상품 구매 촉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진부면 거문리에 건립되는 농민건강관리센터의 총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시설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지원대책은

없는지?

30~40명 건물에 찜질방, 정보통신실, 노래방, 청소년 공부방등 다양한 휴식 시설이 설치되게 되는데, 3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가능 하겠는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정책에 함께 호흡함을 보여줄 의지를 담아 답변을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공중보건의(치과및 타과를 포함) 근무상태 관리 및 개인 의료 행위로 인한 공금 착복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얼마전 언론 보도에도 우리 평창군에 근무했던 치과 공중보건의가 개인 의료 행위로 검찰에 구속되고 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더욱더 강력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평리조트의 농지불법전용 및 영동고속도로4차선 확장공사 진부구간에서 불법 산림훼손등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정상처럼 해오던 모든 사회의 틀이 모두 재조명 개선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평창군의 구조를 새롭게 할 의지는 없는지, 특히 그러한 구조들의 주인공이며 견인차인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600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교재나 커리큘럼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의 살길은 오직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길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비론 아래서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현재 평창군의 장래를 내다 보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시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용기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길이 우리 평창군의 살길이요, 5만 군민이 바라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책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여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6.27 지방선거로 인하여 완전 지방자치 실시이후 집행부에 대한 과도한 민원발생 이유와 향후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로 인하여 완전지방 자치가 실시된 이후 '94. 7. 1부터 '95. 6.30일까지 일반 진정·건의 민원이 83 건인데 반하여 '95. 7. 1- 현재까지 1년도 채안된 시점에서 일반 진정·건의 민원 118건으로 과도하게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단체장에 대한 요구성 민원은 "누구나 전화하면 되지 뭐" 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대화시 자연스럽게 나올정도로 폭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 청산에 따른 과

도기적 과정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줄어드는것이 주민편의위주 행정의 실천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실무자를 너무 법규나 규정 위주로 감사하거나 상급자들의 보신을 위하여 단속하는데 그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제부터는 실무자에게 실권을 부여해 주고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잘못된 사소한 일들은 과감하게 아량을 베풀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행정의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지금까지 처럼 말로만 할게 아니라 향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민원폭주 현상을 해소시킬 대책과 상기 사례 이외의 다른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솔잎혹파리 산림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와 향후 대책 및 계획은?

우리군은 총 1,463km²의 면적중 산림이 84.4%인 1,235km²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자원은 최고 군임에도 솔잎혹파리 피해로 귀중한 산림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제는 하고 있으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은 침투후 3~4년의 적기에 방제시 100%가 소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방제시기와 방제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솔잎혹파리의 최초 피해시부터 방제 및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향후 전망과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식용 생감자 수입에 대한 대처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12,071ha의 전작 경지면적중 '95년 3,301ha에 감자를 심어 75,923톤의 수확을 보아 면적대비로 약 27%의 감자를 재배하는 감자주산지로서 UR 협

상에 의거 금년도 외국산 식용감자가 12,800톤 수입계획에 대기업인 농심이 700톤을 수입한것을 포함, 약 1,000톤의 감자가 이미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감자가 점차 확대되어 수입될 경우 우리군 농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에서는 년차별 수입규모 확대에 따른 국산 감자의 경쟁력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대기업이 농산물 수입에 참여할 경우 향후 농산물수입이 완전개방시 더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대기업의 농산물수입을 저지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암면청사 신축공사에 관련 부실공사에 대한 사후방지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암면청사 신축공사는 연면적 613평 규모로 '9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지하실 콘크리트작업이 완료되었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철거·재시공 지시가 내려져 그나마 지어진 지하실 마저도 철거하

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였기에 이러한 부실시공 공사가 있을수 있으며 공사감리회사가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감독공무원의 책임의식결여는 물론이고 발주한 집행부 책임자부터 하부책임자까지 공사 자체를 등한시한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더더욱 총 2,900만원의 감리비를 지급하면서 감리는 무엇을 했는지, 감리에 대한 제재 방안은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며 청사 준공예정인 금년도 11월이라고 하는데 예정일에 준공치 못하면 공기 연장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본 사건이후 감독공무원이 군에서 도암면으로 건축직 공무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거리에 위치해 감독의 어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나 도암면 건축직공무원의 경우 자격증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말지 못하고 집행부의 책임회피가 아니라고 볼수 없으며 이러한 군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함은 물론 감독을 다시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본 공사의 추진계획과 부실공사방지 방안 및 감리회사의 실질적 감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값 하락과 기타 물가인상에 대한 물가안정 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근래들어 각종 물가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자랑인 한우의 소값은 500Kg 성우기준으로 평균 340만원이었던것이 급락세를 보여 현재는 약 23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나마 팔리지 않는등 당분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소비자 가격은 Kg 당 20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 이를 생체대비 37.1% 인 정육으로 환산해 볼 때 마리당 약 68만원을 중간상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와중에서도 서비스요금에서부터 차량운임, 식료품, 잡화류등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담배값까지 인

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값하락은 상대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축산 및 복합영농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며, 물가상승은 모든 주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요금 자율화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무엇때문에 물가단속공무원이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보면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을 내리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서한문을 발송했는가하면 물가단속공무원이 수시로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값에 대한 전망과 양축농가와 행정부서가 취하여야 할 대책은 무엇이며, 물가를 안정시킬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황계시가지의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대한 군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송천은 1972년 삼양축산을 시작으로 한일목장과 축산기술연구소외에 6개의 전업목장들이 들어 서면서 수질 오염이 극심화 되고 더욱이 생활하수가 송천에 정화됨이 없이 그대로 유입되어 하천으로서의 생명을 잃게됨에 따라 황계 상수원마저도 사용이 불가하여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2년도에 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한 도암면 황계4리 오수처리장은 일부 마을에 국한되어 이용가치가 적을 뿐만아니라 정화능력이 극히 저조 해서 우기에는 빗물이 섞여들어 고여있던 오수가 한꺼번에 넘쳐 흐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바,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맹목적인 사업실행에만 급급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대부분의 시가지 주민이 거주하는 본시가지의 생활하수는 조금도 정화되지 않은채 무단 방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천의 맑은물을 지키기위한 대책은 평창군의 경우 매우 미온적인 반면 오히려 강릉시에서는 송천의 도암댐물을 강릉주민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1개월전 도암면 관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둘러보고 간적이 있을 정도인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이제는 생활오수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수정화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곳곳의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구의 종합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시행시기와 사업비조성방안등과 도암댐의 한전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방안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답변은 1회성 답변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과 실천방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소관별로 들은 다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停會)

(13時00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시 설계의 적정성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 세입재원의 범위내에서 조정과 심의 사정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며 또한 사업예산의 경우는 미절차는 물론이고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심사등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을때는 대략적인 사업물량에다가 예산편성 지침상의 당해 년도 노임단가 건설품셈의 시설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후 현지측량과 실시설계를 할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여건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감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시 계상되었던 진부면 마평리 세월교 사업비 예산 문제는 당초에는 하천 중심부에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실시설계시 도로가

연접되는 지점까지 설치를 하여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서 추가요구된 사업비가 당초예산 보다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작성하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3~4월 경에 작성해서 향후 4~5년간의 지방재정의 추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반행정비에서 민방위비까지 총 20개 항목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분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나 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의 증가 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樂雲 :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평 세월교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실지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집을 짓
는데 1,000만원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집을 짓는 설계부터 집을 다지어 입주할
때 까지 1,200만원정도 들어 입주 했다
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갑니다.

1,000만원짜리 집는데 2,100만원이 되었
을 경우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초부터 6,000만원 갖고 놓을수 없는
다리를 6,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경에
올릴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혹시 없었는
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분
은 없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처음부터 아까 답
변 드린대로 당초에는 하폭전체를 가지
고 도로변부터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중심부에만 교량
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연결을 해서 교량을 가
설해야만 홍수시에 유실도 방지되고 그
다음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거론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한것이 당초부터 6,000만원 요구했
다가 나중에 추경때 그런 계획으로 당초
부터 계획되지는 않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禹康鎬 議員 : 6,000만원이 당초예산
에 승인이 되었는데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7,000만원이 예산이 올
라 왔습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당초 예산이 편성
되게 되며는 해당되는 주무과나 읍면에
서 설계를하게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까? 4월달까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4월달까지 설계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본 결과 당초
목표했던 하천중심부 보다는 도로변부터
하는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
에 증액이 되었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나, 요구때는 이러한 예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문화공보실장 고창식입니다.

우선 김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평 문화마을 육성 발전에 대한 군정시책중에서 향후 육성 방안 및 세부사업 추진 계획 관계와 두번째로 문화마을 환경보전에 따른 군조례 재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평문화마을 육성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산 이효석선생의 생가가 있는 봉평 창동리 남한동 마을은 지난 '90년 6월13일 문화부가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는 총 3억6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마을로 지정되기 이전인 '80년도에는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변에 이효석문학비 건립과 묘지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문화마을로 지정된 이후에는 즉, '91년도에는 생가진입로

1km를 확포장하고 시비와 생가표석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남한동 입구인 봉평면 원길리에 메밀꽃 필 무렵의 작품 배경지인 물레방앗간을 복원 하였고 시비를 함께 건립한바 있습니다. 이는 문화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봉평중고등학교 앞 성황당 자리에 1,369평의 규모로 가산 공원을 조성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봉평면 전지역과 가산과 관련된 자원을 소개하는 목재형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메밀꽃필무렵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지인 충주집 물레방아 노루목고개 여울목등 4개소에 유래 표석을 설치하는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화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효석백일장개최시에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효석백일장 대신에 메밀꽃축제가 개최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마을을 보존 육성에 따른 군조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통제나 제한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자리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폭넓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두경 의원께서도 봉평 주민과 함께 문화마을이 옛모습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강호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부면 마평리 청심대 지방 문화재지정 의지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조 건축물은 역사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고증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바, 있습니다만 단지 강릉 최씨 세보에 경치가 아름다운곳임을 기록한것 밖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고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청심대의 경우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 없을 뿐아니라 정자의 건축년도도 1986년도로 건축년도가 짧아서 도 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여건의 취약하나 현지까지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해서 좀더 정확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부분 지정일수 변경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또 한가지는 이곳에 있는 산나물 채취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비지정관광지운영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것은 지역주민들이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한곳도 비지정관광지를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한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강호 의원님을 통해서 진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문제는 그

지역에서 충분히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서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연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다음 외지인이 산나물을 마구 채취해서 주민소득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청소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는 것은 바로 여가나 놀이로 즐길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비지정관광지는 하천을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일단 저희 진부같은 경우는 가리왕산, 미탄같은 경우에는 청옥산, 각처에 5월정도 되면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산나물채취를 하는데 이는 대다수가 군유림도 아니고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 힘들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비지정관광지는 산이 아니고 계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통제를 해서 돈을 받는다는것은 힘들지 않

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문상에서 보니까 저쪽에 북부관리청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6월1일부터 15일까지 입산하는 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에 나물을 채취한 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리왕산도 동부영림서에서 아마도 내년도에 한 3,000원씩 받으면서 입산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겠냐, 지금 현실정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산나물 채취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감시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모두가 공무원까지 감시를 해서 우리자원을 보존해 나가자하는것은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입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과장 담당 읍면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95년 8월 25일 8개읍면에 지역담당관 1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 담당실과장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창읍은 산업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미탄면은 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장, 방림면은 사회과장, 보건사업과장, 대화면은 기획실장, 산림과장, 봉평면은 도시과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용평면은 지역경제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진부면은 재무과장, 축산과장, 도암면은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과장 담당 읍면 활동은 국도군정시책 및 홍보차원에서 군정 설명회시 읍면에 지역유지, 번영회, 이장등 각계각층

주민들을 초청 읍면 담당과장과 사업관련 실과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의 군정 설명에 대한 보충답변의 형식으로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해오고 있으며 각종 시책 홍보등은 읍면간의 각종 회의를 통해 읍면장이 직접 홍보하고 담당 실과장들은 국도군정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읍면에 출장하여 읍면 행정 시책 추진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과장은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담당 읍면에 업무보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해당 읍면장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실시 이후 과다한 민원발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충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 전반기 31건, 후반기 64건 '96년 5월말 현재 5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집단 민원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군민의식향상

과 더불어 군민의 군정 참여도가 높아진 긍정적 측면을 나타 내기도 하지만 반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등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된 민원조차 민선군수가 해결해 달라는 민원등 실현 불가능한 민원이 접수되는가 하면 혐오시설에 대해 내지역만은 안된다는 넘비지역 이기주의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우리 군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외곡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군의회와 지역인사 및 변영회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익을 위하고 지역전체의 발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후 과감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폭주 대책해소를 위해서 군종합민원실 300평을 신축하여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실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겠으며, 모든 행정은 실과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법규를 검토하여 관편의 위주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에 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품구입시 주민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기위해서 현지 구입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물자구매의 경우 단일 품목 추정단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조달청장에게 공급을 요청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효가 긴 급한 물자라든가,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받은 물자, 위임을 받은 물자라는

것은 5,000만원 미만의 물자를 얘기 합니다.

그다음 관할 지역 소재업체의 구매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매하고자 할경우 이럴 경우에는 현지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조합간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을 통상산업부 장관이 공고를 해가지고 지정해 놓은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체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해야하는데 지역제한 입찰은 도내업체가 전체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것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 미만의 물자구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물자인 경우에는 가능한한 지역 소재업체로 배정토록 조달청이나 조합에다가 요청을 하고 기타 물품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업자 수의계약 제외규정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에는 법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0만원이하인 공사와 2,000만원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계약등이 해당이 되는데 법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게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법은 없습니다. 부실시공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하자가 주관 부서의 기술평가 결과에 의해서 부실발점 100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발점의 관리 는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용역의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별점 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현지에서 시정지시, 즉 도암면 청사와 같이 재시공 명령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때는 계약회사의 성실도라든가, 과거 부실 시공한 경력이 있는지 이런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만 되기 때문에 읍면에도 이지침을 지시를 하고 이래서 과거 부실시공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수의계약을 안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암면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부실공사의 대책과 사후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암면 신축 청사는 '95년 6월 26일 착공해서 부지확장 및 지하층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95년

12월 16일자로 공사를 중지 하였다가 금년 4월 23일 공사를 제기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작년도 콘크리트 타설 부분과 금년도 타설 이은 부분에 부실이 발견되어 콘크리트면이 전체적으로 불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95년도 거푸집 조립후에 겨우내 흙, 먼지등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세척을 하지 않고, 금년 4월 24일 금년도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금년 5월 14일에 거푸집을 탈착을 해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었고 이것을 확인한 즉시 5월 15일자로 부실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라는 지시를 업체에 했습니다. 현재 재시공중에 있습니다만은 철거 총 배상 물량 380 누배 중에서 6월 6일 어제까지 310 누배를 파수해가지고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금주내에 즉, 내일까지 파수를 완료하고 안전진단을 한후에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95년 6월 28일 춘천 소재 종합건축사

무소와 2,550만원의 감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사감리에는 전면 책임 감리와 부분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라 하는 것은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바닥 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에 공사장에 감리가 상주를 하면서 감리토록되어 있고 부분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전면 책임감리 이외의 공사 즉, 5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비상주를 하면서 주요공정만을 감리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암면 청사의 경우에는 공사시행중에 부실 공사로 우리 시행부서에서 부실공사로 판정올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시공 명령된 사항으로서 계약해지등 제재는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 회사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 합니다.

95년 겨울 거꾸집을 조립한 상태에서

금년도 콘크리트 타설시에 거꾸집내에 이물질을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사항 상식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공무원은 사실상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거꾸집 탈작후에 즉시 부실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재시공토록 교체함으로써, 본 사항은 공사시행 및 감독 과정에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고 완공된 상태에서 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군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당초 도시과 소속 건축7급 이병식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감독업무의 과다 군청과의 원거리 그런 이유로 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고 이 공무원이 지난 5월 13일자로 진부면으로 전보 발령 되어서 부득이 현지에 상주가 가능한 도암면 소속 건축7급 이국기로 임명했고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는 시행부서가 관련자를 데리고 주 1회 현지를 방문해서 공사

를 감독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 총공사 완
 공 예정일이 계약서상 '96년 11월 16일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일까지 공사가 진척
 되는 사항을 보아 가면서 조치를 하겠
 습니다만은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계약일까지 준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금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고 완벽
 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공업체로 하여금 한공정이 끝나면 검사
 조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철저한 검사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수 있도록 할것이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등 각분야에 시
 공업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설시공 방지를 위해서 법적인 규
 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

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수해복구 현장울
 의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하고 개인적으로
 도 8일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건축전문직은 아니고, 토
 목 전문직은 아니지만, 제 육안으로 확
 인하기에도 너무 미약한 부분들이 많았
 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자료로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시 재시공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시공 해야될 부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평창군수께
 서 관내 업자들을 다 모아 놓고 부설시
 공에 대해서 특강도 하시고 그렇게 당부
 를 하셨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은 그 업자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감독하시는 공무원들 한테도 다소 소홀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
 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
 하고 있는 현장에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아까 답변하신 그런 내용
 을 시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법적인 규제에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들
 이 수의계약을 할때 확인할수 있는 부분

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사람이 성실 시공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했던 사람인지, 구분이 될수 있는 한 구분을 해서 성실하게 시공을 했던 사람한테 다시 시공을 맡길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예, 알겠습니다. 공사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 사항으로서 군수님께서 직접 공사장 전체를 전부 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부실공사만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부실공사 경향이 있는 업체인지를 분명히 가려가지고 철저히 수의계약에 임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엔 시작을 해서 월동을 했습니다만은 주요 콘크리트타설을 할때에 그날 360 누배를 하루에 다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감독 공무원도 없었고 감리도 없었고 또한 이회사의 장갑순씨한테다가 2억5,000만원에 하청을 주었어요. 이사람 마저 군에서 무슨 형제 로타리 원영근은 토지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감독 공무원 한사람 없고 감리도 없고 또 그하청을 받은 책임자도 없는 가운데 인부 4~5명이 이것을 했습니다 하루 360누배라는 것은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왜서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군의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를 또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더 큰문제가 닥쳐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

금 회사에서 장갑순이 한테 용역비로 2억5,000만원으로 하청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財務課長 權赫昇 : 그것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도급을 주면 우리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도급을 준것인지, 아니면은 불법인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부 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법인 검토를 해본후에 조치가 되어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金鍾永 議員 :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한공정이 끝나면 끝날때마다 준공검사를 그때 그때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南大鉉 : 김두경의원님이 질문하신 측량신청 절차 간소화 및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체제의 확행으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신청절차의 간소화 측량 기간의 단축, 수수료 수납처리 과정을 전산화 하였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화에 의한 측량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행 법인에게 지시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에 따른 전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등기 완료후 소유자에게 등기 권리증을 개별 우송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장비의 현대화와 측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기준점에 의한 측량을 의무화 하도록

대행 법인이 감독 업무를 강화 하겠으며 현재 측량업무 종사자를 5개조로 보강 7일이내에 측량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종합민원실 설치후 지적공사 직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업무처리의 일원화로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제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면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과장 김영주 입니다.

열한번째,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증점관리 대상 인들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복지책으로 융자되는 융자금은 생업자금

융자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생활안정 기금 융자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생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융자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재정특용자 특별회계에서 자금으로 정부 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기금 및 운용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저희 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재정보증인이 없 어도 융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담보 제공없이 수수료만 납부하여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받을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 겠습니다.

현재까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 를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증인 문제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분은 없었지 만은 도저히 어려워서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융자기간이 지연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돕는

자원봉사자나 독지가들의 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자립자금융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정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자금및 생활안정기금은 주민소득자금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것으로서 신용대출 한도액이 1,000만원 이하이며 재정보증은 2,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합쳐서 납부한자가 되겠습니다.

년간 소득 7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인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금도 융자시 보증인 제도를 보증보험중서로 보증할수 있도록 하고 보증인을 구하지 못할 때에는 사후담보를 조건으로 융자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에서는 생활안정기금융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보증을 담당한다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 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아 주고 상환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므로 대다수 수혜자가 만약 상환을 하지 않을시는 결손 처분하는등 결국은 보조금 지급 형식이 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운용에 목적을 감행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우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청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을 1,000원, 2,000원을 말씀하시는데, 본인 담보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1,000원, 2,000원 재산세를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담보하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보증을 서 줘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돈많은 사람이 돈을 떼어 먹지 돈없는 사람이 돈을 안떼어 먹습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열심히 살수있는 의지 있는 사람들이 그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 불려고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위해서 자금을 융자 요청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능력 없는 사람이 그자금을 융자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소위 받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풀고루 혜택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열심히 노력 하겠

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환경보호과장이경수 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의 하신 상수원 절대 보호구역의 상수원의 수질오염 심각업소 및 건축물등에 대한 오수정화조시설 및 폐기물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및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화거리 4km 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수 및 분뇨 발생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 기준을 현행 관계 법령에 의거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 미만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간이 오수정화시설등이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부 상수도의 취수원이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여 변경에 따른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96년 7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진부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진부면 동산리에 하루 2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농촌오수처리장을 건설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7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오수정화시설및정화조 방류수 수질 기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상수도 보호구역 취수원으로 부터 유화거리 4km이내의 지역에 해당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만은 오수정화조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30 PPM 이하에서 20 PPM 이하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BOD 제거율이 50%는 변동이 없고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100PPM 이하에서 80~40 P P M 이하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켰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는 폐기물이 발생한것이 없으며 추후에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상수도 근무자중 청원경찰 및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상수원 보호구역이 4km 입니다.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만은 진부같은 경우에 지난번 현지확인때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은 실지 진부는 지금 상수원이 1km 이상이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사가 같다면 그것을 감안해서가지고 도시과에 상의를 하셔서가지고 앞으로 인허가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정화거리가 물론 옛날에 수량이 많았을때 5km 로 정해 놓은 것이 지금도 5km 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았을때 5Km는 실지 그물이 들어 갔을때 충분히 자전정화될수 있지만 지금 처럼 겨우 흐르는 물 특히 겨울이면 돌맹이를 그냥 들고 고기를 잡을수 있는 물에 5km는 옛날에 1Km, 0.5km 보다도 못한 그런 자전정화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상수원지역에는 4km 규정안에는 약간 벗어나지만은 그 인근 지역에도 이런 규제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호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것 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초과해

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원칙사이에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사업을 하려고하는 사업자의 양해를 받아서 최대한 지도와 설득을 통해서 기준을 강화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특별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날 현지확인때 보셨겠지만, 지역업자들이나 지역주민이 건축물을 지을때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는데도 지하수개발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그다음 그 건물 두동, 김석봉씨나, 조해철씨 같은 건물의 경우에 정화조 탱크가 규격 미달 아닙니까? 두동 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수 있는 상수원이 될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생수를 사먹는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고 맑은물을 먹을수 있도록 저희 선대들이 먹고 살았고 저희들도 먹고 살고 또 저희 후대들이 먹고 살아야 할 물들입니다.

깨끗하게 보존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건물을 짓고있는 1.2Km 이하 지점에 다시 건축물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용벽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를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셔서 가능한한 4 km 이후 지점이라고 하며는 오수정화시설을 좀더 철저하게 갖출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時 50分 停會)

(14時 05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들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료, 계분, 농약등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과 산업폐기물이 섞인 계분및돈분유입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는 일반적으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로 구분하며 말씀하신 계분, 돈분을 구분을 바로시켜 생산된 퇴비는 부산물 비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생개분, 돈분등을 구분을 직접 농경지에 사용할때에는 부산물 비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비료나 부산물 비료에 유통은 비료 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필한후 생산과 판매를 할수 있으며 생산된 비료는 법 제2조 2항 및 3항의 규정과 법 제4조 규정에 위배되는 비료는 생산할수 없습니다.

불량 비료는 생산이나 판매에 쓸때 비료 관리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산물 비료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리하는 자가 사업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 하는 경에는 비료 관리법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관내에는 비료생산 업소가 2개소와 판매업소가 3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관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농약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농산부령에 의하여 시설을 갖춘 농약을 취급할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농약을 판매할수 있으며 농약 판매 업자는 법 제5조 2항 및 제8조 1항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일체 판매할수 없으며 위반시는 농약검사업무처리 요령에 의거 신고 취소및 고발 또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관내에 신고되어 있는 농약판매업소는 3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시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평리조트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암면 용산리 515번지등 총 9필지 12,580평의 용평리조트 소유 농지에 지난 1973년 용평리조트 개발 당시 사업장 부지내에 호박돌과 잣나무, 소나무등 불법으로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용평리조트는 1973년 4월에 고온개발로

설립된후 1973년6월 유곡개발(주)로 상호변경을 하였고 1981년12월에 쌍용건설(주)와 법인 흡수 합병한후 1987년 6월 쌍용양회(주)와 양도양수하여 현재에는 쌍용양회(주) 용평사업본부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형 업체로서 그동안 사업자가 변경되었기에 정확한 행위 시점과 경위를 파악할수 없으나 현지 상황으로 보아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일부토지는 10년이 조금 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20년이 넘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용평리조트에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조사하여 96년 6월 2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용평사업본부장에게 96년 12월 31일까지 전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군전체의 광활한 면적을 농지담당자 1명이 농지관련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이같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수 없었으며, 향후 농지관리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종영 의원께서 질문하

신 식용감자 수입에 대한 대처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감자는 작물의 특성상 국제간의 교역이 힘든 작물의 하나로서 신선상태인 생감자의 수입은 전혀 없었던 품목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 T O 출범이후 최소 시장 접근물량 88년부터 90년도 국내 평균 생산소비량의 3% 인 11,286t을 수입 허용하고 10년후인 2004년에는 5%에 해당하는 18,810t을 수입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면 감자는 알칼리성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국민소득향상 및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으로 커터량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자연소비량 증가분으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감자 생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소 시장접근 물량은 1,286톤의 약 490 ha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불가하므로 96년도 27,000ha의 60만8,000t을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감자 재배지역은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면적의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이 수입되는 생감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 함으로써 국내생산과 차별화하여 시장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강화할 계획이며 감자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개단지당 10ha 규모 이상의 생력기여화 시범단지를 확대조성할 계획이며 '96년에는 봉평, 용평, 진부, 도암등 4개 지역에 총 사업비 2,450만원 투자하여 감자파종기 및 땅속 작물 굴착기등을 공급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감자 kg당 생산비 320kg을 2001년까지는 138원으로 58%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칠 것입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용평리조트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지만은 대기업들의 횡포가 심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해서 저희 행정이면 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군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문제는 발본색원할수 있도록 군의 더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계분, 농약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약은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만이 판매를 할수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농단체라든가, 영농조합법인 같은 곳에서도 농약을 파는데 자격증을 소유하고 팔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자격증 소지자는 판매원이 있어야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농약판매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다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 産業課長 金時漢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禹康鎬 議員 : 평창군에 말입니다.

○ 産業課長 金時漢 : 37개업소가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지금 대리점을 내고 있는 업소 말입니다. 진부같은 경우는 3개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진부 홍농종묘, 고냉지종묘사, 중앙종묘사, 그렇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3개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팔수 없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예, 그렇죠.

○ 禹康鎬 議員 : 농약방을 통해서 나오는 물량보다 영농조합법인이든, 아니면 몇명씩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사람들이 단체로 구입해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격이 실지 농약방을 통해서 사는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양반들이 사오는것을 더 사와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유통질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농약같은 경우에는 덜한 편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저희 관내 농협중에서 계분이나 비료등을 사가지고 산업폐기물

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禹康鎬 議員 : 95년도에 저희 관내 농협중에서 계분이라든가 이런것을 판매를 해서 산업폐기물관정이된 농협이 아마 있을것입니다.

국가 검정기관에 사들인 계분을 의뢰해서 산업폐기물로 검정이 되어서 지금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는데요. 산업폐기물들이 대량으로 섞여가지고 비료나, 즉 부산물비료 규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빠져나갈수 있는 구멍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습도 몇 % 이렇게 정해진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안에 내용물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포장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할뿐더러 환경오염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고 땅심 망가지는것은 이루 말할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평창군에서는

산업폐기물이 섞인 비료같은 것이 들어 오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알고 계시는것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없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농협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37개 점포를 통해 구입하는 비료수급량하고 실지 농민들을 상대로 대단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며는 수요와 공급이 절대 맞지 않을것 입니다.

저희 평창군에는 절대 이런것이 들어 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김종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것중에 수입감자는 가공용으로 회사에서만 쓰게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대기업들이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진부라든가 이런 쪽에 계약을 해서 앞으로 국산 감자만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지역에 와서

그다음 농심이 황계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롯데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감자가 수입이 들어와 있지만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수입감자를 회사에서 가공용으로 쓰면된다하는데 그것은 절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수입감자 전량을 쓰게되며는 우리가 여기서 생산한 감자는 가격이 하락이 되고 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정착해 있는 회사들이 계약물량을 줄이고 나중에는 절대 여기서 계약을 할려고 안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가들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절대 수입용 감자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가공용으로만 쓰게하면 우리 농가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외국감자가 들어오는 단가가 약 500원 ~ 700원사이로 들읍니다. 실지 산지에서는 많이 사며는 싸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생

산된 감자하고 경쟁력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라도 대기업의 어떤 조치와 어떤 역할을 하든간에 수입감자를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상책이라고 보고, 현재 전라도 쪽에서도 지금 만일 수입감자를 쓰는 회사들은 불매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약간 수입감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주소득원을 차지하고 있는 감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절한 신경을 써서 절대 여기에 있는 회사한테도 잘 지도해야 겠지만 다른 회사들이 수입감자를 안쓰도록 어떠한 제재 방안이든가, 어떤 극한 대립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저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時漢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5년도 지금 11,286톤이 커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입은 600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커타가 12,122톤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입한것은

700톤 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金鍾永 議員 : 앞으로는 수입이 계속 되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지역경제과장 강경석 입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만 파괴되고 지방세 수입에 별도움이 안되는 광산개발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광산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업권 등록광구수는 총 231개로서 그중에 채광계획이 인가된 광산은 36개 광산입니다. 채광계획이 인가된 36개

중에서 현재 실지 가행중인 광산은 6개 소이며 미가행 광산은 30개 입니다.

광산개발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중에서 광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원도지사가 책안계획을 인가하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만 군수는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보존의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견제시만 하고 있어 광산개발을 지양하거나 인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광산개발에 따른 의견제시시 자연환경 훼손만 주고 지역주민에게 별도움을 주지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하여 광산개발은 지양하도록 강원도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강호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고장 상품 구매촉진 실적과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상품 구매촉진 실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및 영세

업체를 포함하여 160개 업체가 있으며 그중 영세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은 60개 업체 입니다.

주요생산품목으로는 레미콘, 농.공용필름, P.V.C 박스 등의 공산품과 엿, 서주김치, 목공예품, 메밀국수 등의 농산품 입니다.

95년도까지 군자체에서 관급구매로 사들인것은 레미콘, 아스콘, 중량제봉투등의 내고장 상품중 900만원의 구매실적으로 내고장 중소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관내 중소기업제품 소개책자 1,000부를 제작.활용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제조업체 자료에 대하여 강원도와 온라인망을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내실있고 실질적인 판매계획량 파악 및 구매 알선을 위하여 관공서와 건설업체 수급동향의 사전파악과 관급공사의 인·허가 및 발주사항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관급공사는 설계단계부터 내고장 중소기업체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실적에 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현재 공장등록되어 사업개시된 중소기업은 60개업체이며 이중 '9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 사업개시된 업체는 8개업체입니다. 건축중인 업체가 8개 업체 입니다.

우리군은 무분별한 기업유치를 지양하는 한편 우리고장의 환경을 보전할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공장 설립유치를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공장입지 상담시부터 환경보전에 제일 목표로 두고 기업선정 및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설명회등에 참석해서 우리군 지역의 특성과 기업유치의 필요한 입지적 여건등을 유입물을 제작 배포해서 홍보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고장의 특산물 및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공장설립에 관하여는 자세한 상담과 공장입지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등 공장입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영의원계 고기 소값 하락과 기타 물가 인상에 대한 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 소값 하락 요인으로는 지난번 언론에서 광우병 보도로 인하여 쇠고기 소비가 둔화 되었으며 또한 4월 총선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소값 상승 기대로 인한 중체를 위해 출하를 지연시킨 대기물량의 출하 증가가 그 원인 입니다.

송아지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큰소 출하 확대 또는 소 상인의 농가 출입이 뜸하고 따라서 농가에서 향후 소값 하락을 우려 가축 시장에 출하를 늘림에 따라 소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산지 소값 동향을 보면,

'95년도 9월 14일 500kg 기준으로 329만원이 최고 시세였으며 그 후 계속적으로 약세를 지속하다가 96년 3월부터 하락 폭이 커져 '96년 5월의 경우 500kg 기준으로 272만원의 정도로 소값이 하락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기 소값 안정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500kg이 넘는 숫소를 산지에서 250만원이상으로 수매를 하여 농축협, 또는 한국냉동등의 판매망을 통하여 20% 싼값에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냉동비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수입 소고기 방출량을 하루 400톤에서 150~200톤으로 줄이기로 하는등 다각적으로 고기 소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음식점 및 정육점에 고기값 인하를 유도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 인상에 대한 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 입니다.

모든 물가는 정부에서 자율 요금체제로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 업주의 자율 경쟁가격으로 실질적인 물가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으로서 관내 301개 업소를 카드화하여 중점적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중에는 개인서비스요금 0.9% 상승하여 다소 불안하던 물가는 2~3월중에는 안정세를 회복하여 1/4분기까지 작년보다 낮은 전년말대비 2.2%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물가여건 전망을 살펴보면은 지난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관광행락철을 맞이하여 음식요금, 숙박요금등의 오름세가 예상되므로 쌀수급 불안심리와 농산물의 해저리 현상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부당인상이 없도록 관계부서인 행정, 경찰과 음식협회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집중적으로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금인상 요인의 흡수를 위해 종업원의 시간제 고용, 좋은 식단체 보급, 직거래등으로 원가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로 추진하는등 사업자단체, 협회등 주도의 가격담합등 불공정거래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매 추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쌀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채소류는 산지작황점검을 실시하여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 계획이며 특히 농·축 협등과 협조, 보유 물량을 확대하여 최대 방출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가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

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히 지역적인 답변 같습니다. 지금 현시가 물가 수급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지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하고 군유림내에 광산허가를 할 때 지역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증거는 대하산업개발이 지방세를 내는 현황에서 보며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면허세가 12,600원 입니다. 그다음 주민세가 57,750원 나머지세는 자동차세라든가, 장비의 취득세 입니다. 광산으로 인한 세를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평창군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으면서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국도에서 다 보입니다.

군에서 아무 득도 없으면서 그렇게 다 내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신 자료중에 군수께서 개별법에 따라 의견서를 내시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최대한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산림보존 차원에서 가능한 보호지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창군에서 산림 때놓고, 관광때며

는 남는게 거의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걸 훼손해 가면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걸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광고는 개인 재산권 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하게 되며는 25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개별법상이나 이런것에 저축이 없는것은 사실 군에서도 막을 수는 없으나, 평창군의 방침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지역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것은 개발을 지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지역의 이익이 도모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과괴, 불량골재도 팔지요, 관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 대로 할수있다는 그자체를 사실 용납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산림군차원에서 앞으로는 추후 평창군에는 광산허가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내고장상품 구매촉진 실적에 대

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구매촉진을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 달라고 다시한번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구매촉진을 저희 평창군관급으로 쓰는것이 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평창군에서만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용할수 있는 홍보전략을 잘세워서 다른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많이 사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예, 저희 농공단지 내에서 P V C 필름하고 그 다음 쓰레기 봉투, 이런것은 다른지역에서 쓸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쓸수 있는데 특수하게 저희군에서 생산하는것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군수님도 지역의 상품을 소개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군수님의 서한문도 각기관에 또는 업체에 보내고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때마다 군수님이 우리 농공단지가 잘 안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설명

회때도 내고장 상품에 대한 팜프렛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레미콘 업체 포함해서 6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관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군 관내에 들어와 있는 도로 공사업체들이 저희 지역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의 물량을 써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도 물론 접수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 지역의 업체들의 물량을 사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더 권장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안계셔서 축산에 대한 문제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소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소비자가격은 조금도 다운이 안되었습

니다. 이런것도 행정 지도가 미치지 못했다는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50kg이상 짜리를 250만원에 농축협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판매를한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소값은 더욱 하락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43개 품목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의 현재 실정을 보며는 뚜렷이 나타난것은 다방 차값이 차이 납니다.

지금 어떤 면은 천얼마이고, 어떤면은 천원, 차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 이라도 지도를 한적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다방 차값은 진부가 대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협회를 통해서나, 또 사회과의 위생계를 통해서 우리가 환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진부뿐이 아닙니다. 용평, 평창도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평창은 지금
천원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그리고 군에는 물가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예, 그렇습니
다.

○ 金鍾永 議員 :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예, 저희가
안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저희가 19명으로 구
성이 되어 있고 현재 군 실과소장하고
외지 군의원님 한분하고 언론계하고 금융,
축산조합장님들하고 6명이 외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라는가 또는 물가 인상요인이 생
겼을때 심의를 하는 부서이고 각종 협회
나 단체를 통해서 물가 인하에 대한 협
조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같이 동참
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가위원회에서는 평창군에서
인상 요인이 되는것만 심의를 하고 아

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활동을 한것은
많지 않습니다.

○ 金鍾永 議員 :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인하에 대한 대책회의는 하지 않았습니
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인하에 대한
대책회의는 한적은 없습니다.

인사에 관한 것만 심의를 했습니다.
우선 소값하락과 관련해서 또, 다방의
지역별로 차값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鍾永 議員 :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한번도 금년도 회의를
소집을 안했다는것은 좀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집
도 자주하고 서비스요금 안정에 대한 대
책위원회를 해서 안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님 질문하
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중에 평창 차값이
얼마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천원 입니다.

○ 禹康鎬 議員 : 언제 차를 마셔 보셨는 데요?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근래에도 제가 갔다 왔는 데요.

○ 禹康鎬 議員 :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같이 오셔서 한잔했는데, 평창 차값은 1,200원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樂雲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산림과장 이기춘 입니다. 우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 및 임도피해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수간주사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지침상 우선 순위가 고속도로, 국도, 국립공원, 관광지, 사적지, 이런등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서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솔잎혹파리방제후에 국가사책상 도로 확장이라든가, 신설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에 따른 필요한 시책에 우선하여 목적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저희가 어쩔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최대한의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부면 상월오개리 임도 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월오개리 피해 상황부터 말씀드리며는 '95년도에 평창군의 총 임도피해 산사태가 7.0 ha, 임도 유실이 1.42km 이고 상월오개리에만 발생된 피해가 산사태가 3.94ha이고 임도유실이 0.58km로서 피해복구비는 산사태가 2억4,266만천 원이고 임도복구가 7,5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월오개리복구비를 보며는 산사태가 1억3,418만1천원이고 임도유실복구비가 2,8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복구는 강원도환경연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임도유실복구는 저

회가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복구지가 동일한 장소로서 임부들이 안전관리나 작업여건상 동시 실행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강원도환경연구소에서 먼저 착수를 하고 끝이난 다음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에 80%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복구는 우기전에 복구를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업의 부실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방사업은 현재 강원도환경연구소에서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확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척이 완전히 되면 하반기에 돌망태를 시설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공사가 완전히 되며는 안전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서를 먼저 현지 점검시에 요구하셨는데 그때 바로 문서로 환경연구소에 요구하였으나 환경연구소 직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특히 고성군 산불피해지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치 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제출해 드렸는데,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와 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상태는 5월 중순부터 7월 상순에 발생이되어 솔잎혹파리 자체가 400m를 이동하고 또 바람이 불때는 약 4km를 날아가서 송충이 한마리가 110개의 알을 낳아서 급격한 번식이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확성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수십년 관리를 했지만은 방역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방제방법이 인력방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면서도 소중한 산림자원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솔잎

흑파리 피해 지역으로 소나무 면적이 14,820ha중에서 12,722ha, 86%가 솔잎 흑파리 피해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제계획으로는 수간주사가 3,500ha이고 이것도 강원도에 14%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시비 2,000ha, 지면약제 60ha, 피해 목벌채 12,150ha, 피해목벌채는 강원도의 70%를 지금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710ha의 면적을 산림흑파리 핵심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추진 목표는 특정지역, 주요지역, 우량소나무림, 기타등의 우선순위를 통해 약제방제를 추진 피해회복을 촉진하고 고사목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확보 조기 벌채후 내충성 수종으로 갱신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지는 예산 형편상 방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우강호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솔잎흑파리방제하고 수간주사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시행정의 방제 때문에 국비 예산낭비를 다시 한번 지적 하고 싶습니다.

다음 임도복구설계조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5일이 되도록, 아까 군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한부 받았는데, 저도 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잘보이지도 않는 지번별설계조서라고 하나 갖다 주었습니다. 도면은 언제 갖다 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반드시 요구를 했습니다. 춘천이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樞 :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도에서 실행한 사업인데 거기에 산사태복구는 도사업소인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서류가 적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오기가 곤란하다 라고 생각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보름 동안에 그것 하나 복사 해올 시간도 없었습니까?

그럼 출장복명은 안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차원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이 없지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지금 말씀대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 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내역서만 보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물량이 5톤 차로 다섯대 정도 되나요?

○ 山林課長 李基樁 : 물량은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안해 가지고 오시면은 그럼 서면질문서를 낸 의원은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날 현장에 안나가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가능한 대로 저희가 직원을 출장 시켜서 복사를 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내며는 며칠안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저희가 바로 공문으로 시행해서 보냈는데, 환경연구소에서 각사업장에 파견되어 있고 특히 고성군 산불피해지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에 그렇게 없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공문 시행한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받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갖다 주어야지 그 자료를 토대로 현지확인을 할수 있었을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농민들은 비오기를 굉장히 바라지마는 상월오개리 주민들은 비오는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임도피해로 인한 수해현장에서 1억3,000만원가까이 들인 수해복구 공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사망사업은 전문기관입니다.

○ 禹康鎬 議員 : 강원도환경연구소에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예, 그렇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국가에서 시행했으면 더 믿어야 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환경연구소는 사실상 상급기관인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망사업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국민학교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그자리에 가면 국민학생들도 웃을 일입니다.

현지에 가보셨지만 이사진 한번 보세요. 이 위에 비닐 피복이 바람에 날릴수 있을 정도의 피복 상태 입니다.

그 위에 오리나무 1~2년생을 몇구루나 심었습니까? 몇 m 간격 입니까?

길으면 1m 80 얼마 정도 입니까?

짧은 거리가 70~80cm, 그때 과장님 현지 확인 갔을때 내려 오시라고 했는데, 안 내려 오셨지 않습니까?

이 밑부분 좀 보세요. 반정도 작업하고 밑에는 더욱 심한데도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 입니다. 지금 공정이 80%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 禹康鎬 議員 : 돌망태가 있으면 왜 여기는 돌을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일부는 돌망태가 있고, 여러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강원도산림환경연구원소가 되든, 강원도가 되든, 제가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제가 상급기관에서 한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상급 기관에서 배워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전문가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님이 나가서 보았을때 제대로 못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게 좋다고 의견제시도 할수 있어요. 무엇을 못한다고 합니까? 몇번을 가보셨어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제가 생각했을때는 크게 하자가 생기거나 그런것은 보지 못하고 수종을 오리나무하고 리기다를 심었는데 리기다하고 오리나무는 매가 있기 때문에 추두부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매가 밑에서 나옵니다. 뿌리만 막히면 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밑에 뿌리까지 죽었는데 나올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뿌리를 세어도 셀수 있어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일반 조림지도 그렇지만 사망지도 80% 이상이 확실히 안되면 다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히 안되는 부분은 다시 또 시공이 됩니다.

○ 禹康鎬 議員 : 잔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잔디 처리 말입니다.

잔디 붙이고 나무 말뚝하나 쪼지 않았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나무 말뚝을 전체 쪼는게 아니고 말뚝 쪼는것은 잔디가 내려올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봐서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잔디 내려간것을 안봤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모를 심어도 심은 다음에 바로 뽑아도 뽑히지요.

○ 禹康鎬 議員 : 모하고 상관없이 잔디가 이렇게 섰어요. 비가 조금왔는데 밀려 내려 갔어요. 흙에 덮여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비가 왔을때 내려 갔는데 집중호우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가 1억3,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설계도면을 오늘까지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 하겠습니다.

그날 의원님들 다 보셨잖습니까?

그다음 저는 칠급 줄때 불임이 몇 Cm 간격인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5,920m 입니다. 역새폴심기 단가가 얼마인지 단가 내역서가 없어요.

그중에서 잔디 내역서도 없고 설계도면에 더 나와 있을것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새폴을 어디에서 뜯어다 했습니까? 그날 의원님들이 다 들어 보셨지만, 바로 들립니다.

○ 山林課長 李基椿 : 지금 들머는 다 들립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냥 들리는게 아니고 뿌리채로 다 들리 잿아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 뿌리가 막혀야 됩니다.

○ 禹康鎬 議員 : 뽑지 않아도 뿌리채로 다 들어나 있습니다. 역새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군에서 내줍니까? 아니면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환경연구소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군비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군비는 5% 정도가 군비 부담이 될것 입니다.

○ 禹康鎬 議員 : 5%가 아니라 단 0.1%로도 지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은 2억받으려고 주민이 20억 피해를 불러머는 그런 자금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도 상급기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주민에게 피해주고 주민을 우롱하는 복구공사를 하는 도 상급기관을 무엇을 믿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제대로 시공이 안 되었다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가보시고도 그말씀을 또 하십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80% 공정이 되어 있는데, 보완할 부분은 보완이 될것 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믿어 주세요.

○ 禹康鎬 議員 : 믿을수 있어야 말이죠 실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과장님 밑으로 안내려가 보셨잖아요. 제가 내려

오시라고 해도 안내려 오셨잖아요.

○ 山林課長 李基樁 :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사방사업에 대한 물량을 환경연구소에서 받아다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2억 받으려고 20억을 손해 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리기다나무, 상수리나무, 다른 나무는 본것 같은데 리기다는 소나무를 말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위에를 잘라도 밑에서 매가 나는 것을 리기다 소나무라고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소나무가 저는 10Cm 이상 올라와 있는 소나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울여름을 넘기겠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묘목이 없거나 그러면 어린 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다른 의원님들 지루하실까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을 6월달에 정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만 두실때 까지 정말 성의껏 열심히 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상월오개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저도 앞장서서 제대로 안하면 제가 대모대를 끌고 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로 가 보겠습니다. 이런 시공은 어느 누가 했던 간에 다시 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손으로 당겨서 발로 건드려서 넘어지고 뽑히고 다 죽어 있고 거기다가 5%의 군비를 줍니까? 정확하게 시공해서 상월오개리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확실하게 공사에 임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솔잎혹파리는 이미 평창군이 거의 땅가졌습니다. 지금 횡계까지 침투가 되었고 또한 강릉서도 발생을 해서 지금 대관령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받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산림청 자료에 의하며는 처음에 3년에서 4년만 적기에 완전히 방제를 하

계되면 100% 소생을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창군을 볼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방제를 해왔습니다만은 효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은 처음 발생했을때 근무한것은 아니지만은 제대로 방제를 했느냐는 문제를 다시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지금 전에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또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에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기에 방제되지도 않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약도 남으니까 아무 집에도 주고 가고 그래서 갖다가 밭에나 논에도 치고 일단 소나무에 주사한것을 보며는 나무가 살게끔 안했습니다.

아무 구멍 한자리에 다섯개에서 여섯개 구멍을 뚫어서 그냥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것이 소나무가 전부다 솔잎혹파리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처벌의 대상이 되어

야 되고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이 엄청난 산림피해를 주고 막대한 예산은 다 어디에 갖다 썼는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방제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방제를 적기에 또 그 소나무 한대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어떻게 주사를 해야 살수 있다 하는것을 철저히 해서 전부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고속도로주변, 그다음 조림지 이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골짜기를 들어가서, 지금 봉평이나 이쪽을 보게되며는 거의다 죽고 수간주사 했는데도 다 죽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럴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런식으로 방제를 할려면은 어차피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것이기 때문에 빨리 비어다가 벌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더 좋치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山林課長 李基椿 :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솔잎혹파리백서라고 해서 펴낸 책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는 솔잎
혹파리가 발생한후에 11년이 경과되며
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봉평지역이나 진부 송정
지역을 보며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지
못해서 그지역은 나무가 다 죽어버렸
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안 죽습니다. 평창 지역은 이상하게도
나무가 너무 연하게 자라서인지 들어가
기만 하면 다 죽어 버립니다.

솔잎혹파리는 격년제로 방제를 하라고
했는데 격년제 방제하고 또 주요지역은
매년 방제 실시를 했습니다.

도로변이나 국도변에는 많이 살아 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놓아 주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나무가
거의 다 죽었을것 입니다.

저희가 주요지역인 국도변, 관광지 이런
지역은 경관 차원에서 국가시책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살리겠다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제 예산만 가지고도 벌써 갱신하
고도 남습니다.

○ 金鍾永 議員 : 그 외의 지역은 어떻
게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그 외의 지역은
예산 형편상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병에 들어서 그냥 고
사 될때를 바라고만 있어야 합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거기는 그래서 피
해가 극심해서 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
게 판단이 될때는 별채를 해서 다른 수
종으로 갱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지금 고속도로주변에
많이 살아 있다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
이 80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고속도로 주변을 방제를 했는
데, 고속도로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장평 휴게소 앞
쪽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어가지고 거
기는 방제를 많이 했지만은 거기는 회복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되고
저희 관내에도 평창군청 이쪽 부분은 지
금 현재 회복세로 들어 간다 이렇게 판
단이 되고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군청 주변에는 몇번

이나 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여기도 여러해를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은 방제도 했지만 회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鍾永 議員 : 금년 방제는 판단을 해서 만일 고속도로 주변에도 방제를 해서 살릴수 있으면 살리고 만일 안된다고 하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樂雲 : 가능하면 일문 일답식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때, 또 그이외의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진부 임도피해 때문에 현지를 답사한 사람인데, 사실 가보니까 지금 우강호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공사라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재시공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이것은 저희가 시공을 하는것이 아니라 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환경연구소에 다가 단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金斗經 議員 : 거기에 다시 통보를 하더라도 계획을 추진해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면 안되죠?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솔잎혹파리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속도로변, 국도변, 경관차원에서 주로 수간주사 피해목별채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사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의 고사목을 언제쯤 별채를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산주에게 전부 별채를 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신청을 안하고 있어서 별채가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이것도 좀 추진을 하

서서 적기에 배어 내도록 해서 산주도 목상도 손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산주가 동의만 하면 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해서 물건처분을 우리 임의로 할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金斗經 議員 :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우강호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기 전에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협이 부실 시공을 해서 완벽한 재시공을 시킬수 있는 자료를 제가 충분히 드릴수 있는데도 또 가지고 계시면서도 임협에 재시공을 못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에도 저희 군비가 5%가 투자된다면 그 투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과장님께서서는 계속 상급기관

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급기관 두려워 하는 공무원들 여기에 계세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아직 시공이 완전히 다 끝난게 아니고 지금 시공이 8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80% 공정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 의원들이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상태 안에서 석축 밑에만 빼고 위에는 다되지 않았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椿 : 거기는 다되었다고 봅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습니까, 다된 상태가 그정도입니다. 비닐피복이 묻히지 않아서 다 펠럭거릴 정도의 상태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해 주시고

○ 山林課長 李基椿 : 우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응이 되도록 환경연구소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작년에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반영이 되었으면
임협에서 분명히 재시공을 했어야 되는
데 임협에다 재시공을 못시키지 않았습
니까, 임협에다 말씀은 해보셨습니까?
재시공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런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공문을 보낸것은
없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왜 안보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작년에는 수해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해
서 재시공을 사실상 못시켰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
이 아닙니까, 군이 발주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군에서 발주했다고 해서
침출수에 대해서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백오아파트에 군에서 시행
한 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 보수비를
계상해서 의회에서 지금 10일날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절차 입니다.
유독 산림과만 아무것도 해줄수 없습니
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지역 주민들하
고도 타협을 봤는데 그지역의 숙원사업
인 야외사방하고 농로포장을 해주면 더
이상은 요구를 안하겠다고 합의를 봤습
니다.

○ 禹康鎬 議員 : 농로포장이나 밭가로
석축을 쌓았습니다. 그 석축이 울여름
참 무사하기를 바래야 하는데 걱정이 앞
서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께
서 말씀하신 일문일답, 일괄답변은 안되
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분묘이장
하면서 불법산림훼손한 부분이 있지요.
상진부2리 산27번지 일대 481m²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
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것은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사건인지해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禹康鎬 議員 : 이게 바로 길옆인데
무허가로 이렇게 많은 산림을 훼손하도
록 왜 방치해 두었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저희가 방치해 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즉시 적발해서 입건처리해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적발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받아서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입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사후에 약방문이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산림자원을 그렇게 무작위로 훼손을 했는데도 앉아서 그냥 편히 보고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山林課長 李基樁 : 보고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즉시 가서 입건을 해서,

○ 禹康鎬 議員 : 그것이 하루이틀이 지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李基樁 : 즉시 했습니다. 그날 바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 禹康鎬 議員 : 뭐가 그날 되었습니까 몇일을 까뒤지고 난뒤에 그것이 되었습

니까, 그 공사기간이 얼마인데 그날 바로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군정질문을 드릴때 부탁을 드렸습니까, 할수 있으면 하겠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3分 停會)

(15時35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들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김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대장 정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13,125부이며 건축법은 '61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은 '79년에 가옥과 세대장으로 관리해 오던것을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작성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 건축물 소재지가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위치와 상이한 건축물 대장은 약 650부정도 됩니다. 본 질문내용은 '94년도에 군정 질문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관내 측량사무소와 단가 협의해가지고 일반보다 약 30% 저렴하게 잘못된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서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를 읍면에 신청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완전정리가 되지않은 실정이며

또한 일괄 군이 예산을 투자해서 대행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였으나 기 정리된 건축주와 형평성 문제등이 대두되어서 이의 시행에도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향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중에 본청의 지적과로 이관 관리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제1회추경안에 계상된 내용중 주택관리 보수비에 3,500만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평창읍 중리 80번지에 2,568m²에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직영 사업으로 17평형 50세대를 건축해서 분양공급한 공동주택으로서 이 사업은 춘천에 소재한 세기종합건설이 시공 계약해서 1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 10

월 25일날 착공해서 '92년 12월 4일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준공한 후에 하자보수 의무기한인 준공에서 부터 3년동안 하자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시공자의 도산으로 해서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의 주요하자인 방수, 도장, 설비등을 완전 해소하지 못함으로서 세기건설 협력체에서 수시 보수해서 50세대 입주자가 상당한 불편을 유발해서 군청을 수시방문하는등 집단민원이 항시 상존하고 있음을 물론 행정에 공신력 실추로 불신풍조까지 초래되는 결과가 되어서 현 시점에서 사업주체이자 사실상 하자보수 의무책임자인 주택의 분양공급자인 평창군이 민원해소 및 공신력 회복차원에서 이를 완전히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 시가지 정비사업은 면사무소앞 시대아파트에서 터미널까지가 509m 시대아

파트에서 구 농협창고까지가 310m, 하진부5리 입구에서 구 농협창고까지가 772m 총 1,591m 구간의 하수도 및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사업량은 하수관로 박스 430m와 홈관매설 810m 맨홀40개소 인도포장42.7a 아스팔트포장 150.9a와 가로등, 가로수 식재등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6억원으로 배수불량구간이 시대아파트에서 터미널까지 509m 구간에 하수관로 박스 430m 와 홈관 53m 를 시설하고 동 구간에 인도정비라던가 아스콘포장, 가로수이식, 가로등 이전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97년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96년 2월 9일 도 엔지니어 주와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96년 4월 24일 날 완료해서 '96년 6월 7일 즉 오늘 입찰을 봤는데 지금현재 연락은 바에 의하면 흥천에 소재한 삼광종합건설이 3억4,321만7,600원으로 입찰이 되었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우강호 의

원께서 질문하신 진부 광역상수도 부도
업체 관리감독 및 부분준공이 늦어짐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상수도는 '80년에 1,000t 규모로 시
설되어 운영중 급수구역내의 급격한 개
발에 따라 물수요 충족 및 맑은물 공급
계획에 의거 1일 9,500t 규모로 '95년에
착공해서 '97년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72
억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공사의 시공업체인 춘천시 효자동에
소재한 명일종합건설이 '95년 12월 회사
부도로 도중회사 및 은행에서의 압류및
전부명령과 노임채불 정산 협조 및 일체
의 금융거래가 정지됨으로 우리군에서는
우선 변제조건인 노임채불액 2억700만원
에 대해서 우선 변제해가지고 노임지급
을 선행하였으며 회사에 압류 및 전부명
령을 해지토록 중용해서 '96년 5월 23일
정상적인 건설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96년 6
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부상수도는 1차년도에 취수시설 및 배
수지와 송배수관로를 시설해서 우선 급

속여과방식 공급토록 하였으나 '96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정수시설을
완속침전및 여과방식으로 시설해서 급속
여과시설에 투자될 3억원을 예산절감하
여 이에따른 사업준공시기가 '97년말로
지연되나 이는 상수도시설의 완벽한 마
무리를 위한 기간이며 전체사업의 완공
시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
계시가지 생활오수의 하천 유입에 따른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횡계시가지의 생활오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은 크게 5개소로 그중
1개소는 '94년부터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횡계시가지의 일부에 오수처리
를 하고 있으며 시가지 전체의 생활오수
처리 계획은 '99년 동계아시아경기 유치
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수질 보
호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 및 관거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중앙부서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1일 3,500t 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직관로 4.4km로 총 사업비가 43억원이 소요되며 동 시설이 완공되면 황계시가지의 생활오수는 완벽히 처리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금년에 시가지 일부의 오수 및 우수 처리를 위하여서 면사무소 앞에서 황계7리 교회에 있는 구간을 1억원의 사업비를 '96년 5월 8일 착공해서 '96년 8월 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부광역상수도 부분 준공이 늦어진것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명일업체가 실지 부도를 낼 당시에 그 지역에 장비대금이라던가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미지급 했었습니다. 군에서 받아간 돈은 있는데 명일 회사 나름대로의 다른사업장에 투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에 투자한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서 사실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다음 진부 시내의 정비에 대해서 실지 진부는 상습침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설계를 마쳐서 착공해서 저희 진부면민의 원활한 민원을 해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네. 그것은 오늘 입찰을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 다만, 삼강종합건설이 낙찰이 되었답니다. 빠른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진부지

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다음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 근로자아파트 시설 보수공사에 3,500만원의 보수비가 계상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도시과를 포함한 다른과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이것과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이렇게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해줄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글썄 다른과는 잘 모르고요. 저희과는 이것을 옛날에 했는데 서민들이 입주를 했고, 그때당시부터 협력업체에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3%를 받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찾아오고 그래서 50세대 200명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군에서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14억2,0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하는데 하자보증금을 3%예치를 못시켰거든요.

○ 都市課長 權純喆 : 네.

○ 禹康鎬 議員 :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책임은 나중에 이것 저것 가려봐야 겠지요.

그런데 우선 민원을 해결해 놓고 여름 장마철이 오는데 비가새고 통로가 5통로로 위의집이 10세대인데 제가 집을 직접 다가보고 또 밑에도 가보았는데 비가 오니까 하자보수를 해주고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지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군비를 낭비시키는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인데 지금 백오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영세민들이 살고 있고 어려운분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는분들 일반인들이 몇가구 살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총 50세대 중에서 영세민들을 해서 했는데 1순위 2순위 순

위를 정해서 실지 들어온것은 10세대는 영세민이고 잔여분은 저소득층, 운전업을 한다던가, 또 우리군청 공무원들도 몇분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몇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공무원이 90%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데요.

○ 都市課長 權純喆 : 90%까지는 안가고요. 몇세대 살고있다는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근로자아파트 보수비를 민원해소 차원이고 군행정에 그런 위상, 평창군이 사실 시행정이다 보니까 시행정의 명예실추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해줄려고 하는데 참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군정 질문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공공시설물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었거든요. 근로자 아파트 보수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내용인데 이상하게도 임도는 작년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공시설물이라고 반드시 답변하신 기록이 평창군의회 회의록 제36회 임시회 회의록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공공시설물인데 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받을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세상을 많이 못살아서 그런지 의정 활동을 1년밖에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차원에서든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면 보상은 해주되 3% 예치시키지 않은 부분, 그다음 관리감독을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을 해야할 지역이 우리군에 4개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99년도에 황계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3개소는 언제 할수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제가 조금전에 답변한것은 황계지역에 구역별로 4개소가 하천으로 나가는 그 내용이고 '99년도에 동계올림픽이 황계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에 43억 정도를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되면 황계지역은 완전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李慶鎭 議員 : 그럼 황계지역 말고는 타면에도 대상지역이 여러개소 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타면에는 평장이나 대화, 진부, 도암에는 '95년도에 하수도 용역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1월 25일 날 보건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할 계획

입니다.

○ 李慶鎭 議員 : 연차적이면 언제부터 해서 언제정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다 해결될수 있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용역계획에 보면 2011년까지 다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5개읍면을 하는데 예를들어 평창읍이라면 평창읍을 일시에 다 하는것이 아니고 제일 취약지역부터 먼저하고 또 그다음 예산이 되면 하고하고 해서 2011년까지 다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慶鎭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보건사업과장 손동흠 입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근무관리상태 및 개인의료행위로 인한

공금착복에 대한 예방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근무하던 치과 의사들의 의치 및 보철행위로 인한 이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총 18명으로 그중 보건의료원에 8명중 전문의 5명, 일반의 3명, 보건지소에 10명중 일반의7명 치과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화를 비롯한 일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보철을 하고 대금을 부당 착복한 사례가 있어 사직당국에 적발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법에 준하여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치과의, 의치, 보철행위는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치과의사에서 보철을 하지 못하도록 수차 지시 하였으나 다만 일부 보건지소에서 개인적으로 보철을 하였으나 미처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같이 은밀히 이루어진 보철행위

금지 및 공중보건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하여 치과의 경우 같이 근무하는 치과 위생사로 하여금 신고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법처리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금년도 4월말에 전원 제대를 하였으며 금년 5월에 치과신규2명, 일반의 3명 총 5명을 새로 배치받아 보건의료원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18명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공중보건의사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하여 감시감독 철저는 물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장께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같은 치과 동료 공중보건의 끼리나 직원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한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네.

○ 禹康鎬 議員 : 같은사람들인데 누가 신고를 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그런데 보건지소의 장비나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몰래 도와준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공중보건의사하고 치과 위생사는 신분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한 공무원들한테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나눠먹은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줬지 그냥 도와주었겠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그것은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지 중앙지에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지에도 이 구속된 기사가 자랑스럽게 평창군까지 포함해서 큼지막

하게 나있는데 추후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평창군 세수중대에 보건의료원이 적극 기여를 부탁 드립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 농촌지도소장 유재국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에 농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지원액이 총사업비 비해 모자라고 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지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농민건강관리센터에 설치 목적에 대하여 잠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농촌의 열악한 농작업환경과 농촌의 복지시설 미비로 도시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민의 건강이 좋지 않을 뿐더러 삶의 질 역시 낙후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능률적이며 전원적 아름다움을 갖춘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생활개선 정화 시범마을인 진부면 거문리에 농민건강관리센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은 도비 50%를 포함한 보조금 3,250만원과 자부담 3,650만원을 들여 총사업비 6,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충북 제천시 봉양읍 용도1리 마을을 견학을 하고 도내 타시군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마을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보조금 3,250만원과 자부담1,500만원을 더해서 총사업비 4,75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에 부족분과 본 시설을 복원하는데 재원은 농촌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마을대표자와 깊이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민건강관리센타 설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각읍면 마다 본사업이 확대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민건강관리센타가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강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의원 입니다. 농민건강관리센타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지금 많은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지 총사업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4,750만원도 30~40평 건물에 찜질방이나 정보통신실,

노래방, 청소년 공부방등 이런 다양한 휴식시설에는 사실 태부족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30~40평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도 꽤많은 것은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50만원 정도 짓는다 해도 건물 짓는비만 상당한 돈이 거든요.

그러면 실지 찜질방이나, 정보통신실 컴퓨터를 한대만 들여 논다고 친다해도 거기에다 FAX, 모뎀 그런것을 다 들여 놓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최저가로 들여 놓고 노래방 기계, 청소년 공부방에 도서를 포함해서 들여 놓으 며는 사실 이 예산은 저 개인적인 생각 으로 50%에도 못미치는 그런 예산 입니 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또 이 런 투자사업을 하면서 농민에게 많은 부 담을 시켜가지고 사실 군에서 이렇게 많 은 일을 하고도 나중에는 지역주민들에 게 해주고, 안해준것만도 못한 그런 뒷 말을 들을수 있는 그런 휴유증이 반드시 있을것 입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자부담을 최소한 줄여서 어차피

만들어 줄것이라면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실것을 제 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指導所長 劉載國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강 부군수 그리고 김용욱 군수의 답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는 보충 질문이 있을때에는 소신있는 답변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강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容康 : 부군수 박용강입니 다. 우강호 의원께서 두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 겠습 니다. 먼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처별 등에 관한 인사상별위원회의 역할은 무 엇이며, 축산과장 직위해제 문제로 인한 인사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법 제2장의 인사기관에 해당하며 부군수를 포함한 군 간부공무원 4명, 일반인사 3명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역할은 첫째,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둘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 심의.

셋째,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넷째,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 의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여섯째,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등 여섯가지로 대두됩니다.

축산과장 직위해제로 인한 인사위원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산하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의 근거하고 있으며,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둘째,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중인자.

셋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자로 규정하고 있어 축산과장의 경우는 위의 제1호 해당되며 동조 제3항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고자 아니할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직위해제의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단지 의견을 제시할뿐이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아니어서 이번 직위해제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권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특히,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과거의 타상에 젖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에 상응 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것이 시대적 조비임으로 이번 축산과장 직위해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4월 24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직 발령치 않고 직권 면직을 시키려면 축산과장은 5급 이므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있어 직권 면직이 될 경우 정의수 본인으로서는 소청과 행정소송등 구제의 절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축산과 소관 질의 사항으로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축산물 등급판정 기반시설이 축산농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등급판정 시설보완 당위성부터 말씀 드리며는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산지 도축시설의 현대화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반하여 본 군의 도축장은 위생처리법상 간이 도축장 시설 기준이므로 '97년말 자동 폐쇄 대상입니다. 이번 본군 간이도축장을 일반도축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억4,984만원을 확보하여 냉동, 냉장, 골발 정형실, 현수시설등을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군의 한우 쇠고기 품질 인정 획득등 태백권의 육류 유통 중심기능 확보를 위하여 관외 반출허용 기준시설

로 존치해야할 필요 시설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존 도축장의 폐쇄시 원거리의 외지 도축장을 이용하는 불편과 불필요한 경비의 추가 부담, 군세수입의 감소, 판매축의 감제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증가로 소득 감소가 예상 됩니다.

현 평창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관외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이며 현재 횡성 도축장에서 도축하여 관외 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외 반출이 가능한 도축장으로 시설 보완하므로서 도축물량이 증가되고 생산지 도축에 따른 가축거래의 활성화와 양질의 고급육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므로서 축산농가소득이 크게 향상 될것이 예상됨은 물론 현지 도축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구축과 청결하고 신선한 육류 공급으로 주민 보건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업의 특혜를 주는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의 최대한의 재정자립이 요구되는바, 도축물량의 증가로 군세

의 수입증대 효과가 기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우강호 의원 입
니다. 부군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시설이
1억4,984만원 입니다. 이부분이 '97년
말로 현재 도축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셨
는데 그러면 96년도 추경에 굳이 올렸어
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副郡守 朴容康 : 이것은 저희군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도축장 시설
을 설치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가
지 예산을 지역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예
산을 확보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
축장을 시설해서 앞으로 97년도 폐쇄되
는 간이 도축장 시설에 대비하고자 한바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도축시설은 축산기업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 나름대로 기금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식육점 하나가 개업을 하면서
식육점협회의 가입비가 1,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재정이 있을 텐데 저희군에
서 1억5,000만원 가까운 돈을 또 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가? 그다음 추경예산심
의때 답변 듣기로는 축협하고 삼양축산
에서 나오는 도축을 주로 해서 관외 반
출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수증대 과연 1억4,984
만원, 1억5,000만원 정도되는것에 대비
해서 이자수입이 아니면 군세수증대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 하십니까?

○ 副郡守 朴容康 : 현재 월간 도축현황
을 보며는 소는 약1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약 700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도축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한다고하며는 소는 약200두, 돼지는
월간 1,000두 정도 도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세가 약 3,500만원 정도에서 4,000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시설확장을 해서 일반도축시설이 된다면는 연간 약 8,000~9,000만원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러면 저희 군이 8,000~9,0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된다면 축산기업 협회는 이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얼마의 이득을 볼수 있습니까?

○ 副郡守 朴容康 : 자세한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 禹康鎬 議員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드렸던 인사상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징계 의결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인사상벌위원회 역할은 의견제시를 하는 기능만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의견제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 임용권자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 副郡守 朴容康 : 이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의결권이 있습니다

만은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에게 있고 인사위원회는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인데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임권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임용권자에 의견에 따라서 검토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 축산과장 지금 직위해제되어 있는 정의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먼저 밝혀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 의결이 직위해제로 되기까지 인사위원회 상벌위원장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번 건의 드린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원들의 결정도 상당히 여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副郡守 朴容康 : 군에 감사부서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실을 조사를 해서 임용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받고 이래서 최종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시킨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과장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

는 평촌리 축사관리 불법신축 지도 미흡에 대한 농가 피해 조사일 현재 근무일 80일중에 약 41일을 출장으로 과업무 정착이 미흡, 그다음 출장복명 미흡, 주민등록을 강릉에 이전하고 강릉에서 출퇴근 하므로서 여러가지 업무 공백, 이러한 사항들이 직위해제된 주 사유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까.

○ 禹康鎬 議員 : 정의수씨 말고도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원주나 강릉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게 굳이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 副郡守 朴容康 : 간부 공무원 이기 때문에 수차 주민등록을 평창에 옮기도록 지시를 받고 그랬는데도 이행을 안하다가 이번 여러가지 직위해제사유와 이제 말씀드린 사유와 병행해서 그내용이 포함되어서 직위해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직위해제 증인 축산과장 정의수씨는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받기전에 다른 징계 사항이 어느 정

도 있습니까?

○ 副郡守 朴容康 : 징계 사유 말씀입니까?

○ 禹康鎬 議員 : 이 징계를 받기전에 전에 징계받은 사실 말입니다.

○ 副郡守 朴容康 : 과거에 징계받은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징계도 그렇치만은 포상도 그렇치 않습니까? 상벌이라는게 어느정도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상을 줄때 군수상 받지 않은 사람을 도지사상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상을 받은 사람이 장관상 받고 장관상 받은 사람이 총리상받고 대통령 표창받고 그런 순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副郡守 朴容康 : 조금전에 우강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직위해제 전에 징계사항은 과거에 감봉처분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다음은 그 위원들의 결정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게

100% 임용권자의 의견을 받아 드리는 태도이었습니까?

○ 副郡守 朴容康 : 제가 인사위원장으로 당시 의원들 의견을 진지한 의견을 제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사항이니까, 임용권자의 처분에 따르자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지 이런 인사문제로 인해서,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3회 이상 추가 질문을 할수 없는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봉평면 전 면장 황보한씨, 그리고 전 축산과장 정의수씨 이런 분들이 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 수습회 약 20회에 달하는 인사 물의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지 않습

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매끄럽게 대처해서 평창군에서는 인사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전국구 평창군이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도 잘타고 언론에도 보도가 잘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많이 오르 내리니까 젊은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이기전에 제가 평창군민이라는 자부심을 자랑스럽게 가져야 되는데 갖지못하는 그런 부분일때도 다소 있습니다.

차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강압적이고 큰 징계만이 평창군 전체를 잘 움직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매끄럽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容康 : 사유나,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좋지 않은 보도가 연일 게재 된것은 저 역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관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용욱 군수께서 정책의지가 필요한 부분등을 종합하여 답변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容郁 : 존경하는 김낙운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활기찬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을 염려하시고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타와 염려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교훈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먼저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중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실과소장이 답변한 사항중 중요 부분 몇가지를 강조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과 이수현 의원이 질문한 경로당 부분에 대한 답변 입니다.

우리군의 경노당 숫자가 인근 자치단체보다 적은 사유는 하루아침에 차이가 난것은 아니며 누년에 걸쳐 오늘의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반면 부족한 경노시설을 신축 하는것은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단기 대책으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회관등 공공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가능시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개보수하여 경노당으로 등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경노당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진의원과 이수현의원이 질문한 31번국도 4차선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지난 제36회 임시회의시 군정 질문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취

임후 우리군의 현안사항으로 파악 된후
공론화된 지역현안 사업 입니다.

본 현안사업은 그간 지역 국회의원과
평창군의회, 지역주민, 강원도와 평창군
영·평·정 행정협의회의 노력으로 매우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강원도에서 계
획한 '9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정비
사업에 포함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
으나 강원도에서는 대회 개최지 접근 도
로로 접목 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본사업에 주력하다 보
면 국비에 의존하는 995억원에 달하는
하수 정비 사업비 확보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최지 정비
사업계획에서 제외 되었으며 별도로 건
설 교통부에 본사업 성사를 위한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성사 될때까지 군에서
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말
씀드리고, 아울러 의회와 군민의 지속적
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이 질문한 삼방산 개

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기대감을 줄수
도 있고 자칫하면 실망감을 줄수도 있는
사안임으로 내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
하고 있으며 이자리에서는 여러면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 드
리겠습니다.

아울러 6월 4일 건설과장이 답변한 군청
앞 중부교 신설은 삼방산 개발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에서는 계획된 기간내에 앞당겨 준공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의원의 평창상수도 취수장
이전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에 16여억원을 투자하여
확장한 평창상수도사업 취수장이 부실
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하는 결과를 빚
어 군에서는 재시공 목적만이라면 군비
투자 없이도 '93년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 시킬수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재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시공 위치의 토질이 취수장으로는 부적합한 토질로서 이곳에 취수장을 강행할 경우 향후 지난해와 같은 상수도 공급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또한 지역 주민의 강력한 취수장 이전을 건의 받은바 있어 새로운 취수장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과수원 앞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취수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위치는 샘물이 솟는 곳으로 양질의 상수원 취수가 가능한 지역이며 이곳으로 취수장을 이전하게 되면 군 소재지의 상수도는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군비를 재투자함으로써 낭비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미래를 생각하고 군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순수한 위민 차원에서 옮기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한 취임후 군정목표 5가지와 소신있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36회 임시회의에서 5대 시책은 서비스행정 대도시 상설판매장, 전원농개발 1읍면 1특화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한 개발 이상 5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서비스행정 사항은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위주의 행정사항으로 이는 아직까지 제가 목표한 만큼의 성과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나름대로 평가할때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밝혔던 행정서비스 시책을 지속 실천하고 상가집에 대한 제반 봉사활동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을 위한 시책을 지속 개발하여 서비스를 향상 시키는데 노력함과 아울러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반복교육을 지속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도시 상설판매장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판매장 외에 금년도에 보조2억 자부담 1억으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판매장을 부천지역에 신설키 위하여 군과 합의하에 추진중에 있으

며 년차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원농 개발사업은 6월 4일 산업과장이 답변 하였듯이 유보상태이나 조직개편이 끝나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재개발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읍면 1특화사업은 산초나무 단지는 현재 묘목 생산중에 있으며 한우 단지는 금년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사업에 4,000만원과 무공해 고추가공시설 1억2,400만원, 무공해 쌀 생산단지 조성에 2,100만원, 메밀관광단지 조성에 3,000만원, 무공해 채소생산단지 조성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억6,000만원, 무공해 고품질 채소생산단지 4,5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특색을 부각 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로 지역특화 품목으로 부각 시키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이 참여한 개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접목 시킬만한 개발사업이 없었으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99동계 아시안게임 관련 개

발사업에 꼭 접목시킬 각오입니다.

다음 취임초기 의욕적인 모습이 상실되고 임기동안 소신있는 군정목표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저의 소신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마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임기동안 주민 위주의 행정만은 꼭 이루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개발부터 군정 시책을 추진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군민을 위한 행정처리 자세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군정목표는 스스로 달성 되리라 믿습니다.

반면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우리 공직내부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능동적, 긍정적, 적극적 사고와 돕고자 하는 공직자세 만들기는 어떤 희생이 따르고 제가 때지런 불이익을 받더라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적절한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 집무실에는 " 변화하면 살고 변

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는 표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치시대뿐만 아니라 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민선시대에 변화를 못하는 동료 직원과 자치시대를 해롭게 하는 공직자에게는 관용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화의 갈등속에 불미스런 인사 조치로 말미암아 군민과 의회에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는 큰 유감입니다만,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우강호 의원 질문사항중 민선군수 1년 재임기간중 성과와 선거공약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민선군수 취임후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재삼 실감하면서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군정의 여러분야에서 변

화와 함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첫번째는 공직사회 내부의 의식변화와, 두번째는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세번째는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우선 행정편의주의 관행을 탈피, 주민편의로 전환시키는 것을 행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민원인 응대에 알맞는 사무실의 정비와 함께 직원 교육시마다 공무원의 참봉사 자세를 강조해 왔고 공무원의 승진 우선 요건으로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자세를 보는등 내부 변화에 주력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공직자세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민원인 후견인 제도와 민원처리 제도를 개선하였고 특히 민원인 관청 방문시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군비 11억원을 투자 전국 최초의 종합민원처리센터를 금년내 완공하여 민원처리는 물론 상담실 및 휴게실, 독서실 등을 갖출 계획이

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민원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저는 취임시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참심부름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군수실을 항상 개방하고 관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여 왔으며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주민의 사소한 뜻이라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성과로는 '99동계아시안게임의 유치로 2000년대 으뜸 자치평창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있겠습니다.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계기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희망해 오는등 개발분위기

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우리 군민의 역량을 모아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다면 21세기의 으뜸 자치 평창은 우리앞에 가시화 될것으로 확인 합니다.

다음은 제가 군수로 취임시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군수로 취임시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총 6개분야에 26개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16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3억6,700만원, 도비 17억800만원, 군비31억6,800만원, 기타 5억3,500만원등 총 57억8,800만원을 투자 추진중이거나 금년중 착공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임기내 마무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민자유치 방법등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금년내 착공 계획에 있는 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신축

농산물 직판장, 노인복지회관을 금년내 착공하여 '97년말 완공을 목표로 용평면 장평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금년도 16억원을 투자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평창 문화체육관 건립사업도 금년도 이월사업비 포함 12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의 사업으로 평창장학기금 확대운영에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홍보물 제작에 3,8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무공해 고추생산단지 조성에 6억6,000만원, 무공해 쌀생산 단지 조성에 2,000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봉평 메밀 관광마을 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투자 요리실습장, 메밀오솔길, 사진촬영 등을 갖추 내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의 오대산 관광도시개발, 생수공장 건립, 주민이 운영하는 스키장개발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임기내 추진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자유치등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 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직제개편은 당초 계획은 금년초에 완료기로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혹은 년초에 개편한 일부 시군에서 다시 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견으로는 강원도의 개편 추이를 보아 가면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편의 위주, 비능률 낭비요소가 없는 생산성 높은 개편안을 마련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사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승진의 경우 해당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규정에 정한 일정한 배수범위(4배수)내의 공무원중 최초 및 현직급 임용과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지휘통솔능력등을종합분석

하여 승진 대상 후보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며 전보의 경우 6급이상은 전보기준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고 7급이하 인사위원회의 전보기준 심의없이 시행하며 문책성 인사가 아니면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제2항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첫째,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둘째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자, 셋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이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를 직위해제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임후 있었던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일부 불미스런 인사에 대한 주민여론 및 언론사향에 대해서는 구태를 바라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항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모순된 여론으로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경우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사회의 비리와 중앙 및 도단위 각종심사, 사정에 따른 문책및 업무과장, 지방자치후 증가된 지역이기주의성 집단민원의 제기 등으로 공직 내부의 사기가 일부 저하되어 있는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여가생활 배려 특별휴가, 직장동호인 활성화, 가족동반 효도관광, 해외연수, 직원가족 체육대회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아울러 승진, 전보등 인사 행정 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연공서열보다는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성과와 보람이 나타나는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기존행정사무의 관리 지향적 절차 복잡성에 대한 사무 혁신을 통해 능률을 높이고 직무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에게 좀더 높은 만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직분위기를 저해하는 공직자와 구태를 벗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감사 기능을 통한 점

검으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공직자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학기금에 관한 답변입니다.

장학 기금은 궁극적으로 향토인재 양성과
불우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목적
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학생
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단돈
1원이라도 수입성이 좋은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제가 축협장을 역임한 전력을
놓고 여론을 야기 시켰지만, 제가
금융기관에 있었던 경험으로 군민에게
더많은 혜택을 베풀기 위해 수익성이
좀더 나은 저축상품을 제안했고 이사회
에서 전원이 찬성하여 이전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창 장학회가 설립시부터 저축
상품 선택을 잘못 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을 현재의 이율로 환
산하여도 1,000만원 대지 1,500만원에
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CD관계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진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예수금 실적에 포함되지 않
아 대출한도 배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
역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대출 한도가 높아 짐으로
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면으
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군에서는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군재정
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저축상품을 이
용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개정의지에 대한 답변 입
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 하
반기에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주민의 불
편을 주고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
여는 주민편익에 부합되도록 면밀히 검
토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심성, 특혜성 예산에 대한 질문
은 앞서 기획실장이 답변한바 있으나,
공정을 기한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편성
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선심, 특혜라는 표
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5월
11일 시공업체 교육시에도 밝혔듯이 냉
철한 조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의식

개혁 차원의 교재나 교육과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매월 월례조회시 군은 물론, 읍면 직원까지 청내방송을 통한 특별정신교육, 여직원 친절교육, 직원과의 대화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용대요령"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요령" 을 발간, 대민친절 필독서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대비한 공무원 해외연수, 자체 일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업무 연찬을 위해 군간부 공무원 기업체 연수실시와 그룹단위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 채택 될 경우 포상과 인사반영 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에게 답변을 요하거나 실과장이 답변한 내용중 몇가지를 강조해서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답변 내용이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만족치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사항 하나하나는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영되거나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議長 金樂雲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 입니다. 군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실의 표어가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직역으로 한 번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흔히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워낙 강성이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분이 들어도 아마 이렇게 할수 있을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들리기를 이렇게 들립니다.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직위해제다

이런 내용으로도 들릴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의식의 내부의 의식변화가 많이 되어서 군수님께서 답변에 나갔을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속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시다만은 좌불안석 면중복배 이런 차원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수님 방을 개방해서 민원인들이 늘 찾아 올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자리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면 주민이고 군민 입니다.

실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 바빠서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못들어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군수님이 무서워서 군수님방에 못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여섯개 분야 26개사업 중에

서 현재 16개 사업 착공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말 잘 되시길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직제개편을 6월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하고 상당한 의견으로 좋은 직제개편이 될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승진, 임용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거쳐서 참고로하셔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 의견들을 잘 좀 듣고 함께 의논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다음 인사고유권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개입하는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인사가 잘되었다라고 하려는 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봉평면장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군수님께서 사과를 하신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면 사과는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다음 CD양도성 예금이죠. 이것은 실지 들어가며는 중앙으로 바로 올라가는 금

액입니다.

대출자금으로 내려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기에탁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부분 만큼 대출자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CD로 들어 가게 되며는 대출자금으로 농협이든, 축협이든, 중앙에서 내려 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월례조회 청내 방송으로해서 읍면까지 매월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월례조회하는데 민원인이 있는데, 그 청내방송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민원업무 봐야죠, 이것 저것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容郁 :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아까 우의원 얘기 대로 직위해제된다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CD관계는 군지부에서 우리가 1년간 거래하는것이 900억원이 넘습니다만은 매년 군지부에 들어가는 돈이 CD로

안 넣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영농자금이나 이런것으로 나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CD로 들어갔던 안들어 갔던 이지역에다가 예금 배출하는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D로 들어가나 안들어 가나 한가지고 어차피 그동안에 지금 CD로 해서 94년도 우리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7월 1일부터 CD로 활용해서 7억2,000만원, 그래서 94년도에 비해서 4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금 5월말 현재 8억이 이자수입이 올랐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CD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농협군지부의 수익으로 그냥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상 앞으로도 활용하는것이 우리 군정 재정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재정 세입이 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금고를 잘 이용을 해서 최소한도 제가 생각하기에 15억원 정도 되지 않겠냐는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 지방세보다 배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안할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그 수익이 군

지부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개편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다소 도에서 한후에 하는것이 적합한것 같아서 년초에 할려고 했는데 못한 사항이고 인사위원회 관계는 의원님들 뿐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공무원들도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과거에나 지금 의원님들이 보기에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건이나 봉평면장 관계도 가서 사과는 인사로 인한 사과는 절대 없었습니다.
 다만 군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동안에 직접 대화를 많이 못해서 물의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인사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4배수 이내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또 지휘 통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해야지 서열

순으로 한다라고 하는것은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서열만 기다리고 있지 실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사 관계는 그렇습니다.
 월계조회는 직원 전체 조회를 합니다. 면장을 부르거나 아니면 부면장을 불러서 전체 조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는 전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방송하고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1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냐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에게는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린바와 한가지로 여러가지 민원 관계나 이런것들을 지금 밝힌바 대로 소신껏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樂雲 : 이경진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예, 이경진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중부교량 관련 소관별 답변에서

건설과장님께서 '97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사업에 의욕이 앞선던 답변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는 중기 계획에 주민 숙원사업인 종부교량이 차질없이 착공 될수 있게끔 군수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추가 질문 없습니까?
(아무소리가 없음)

김용욱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군정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군정의 공복으로서 성실한 책임행정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 休會의件 (議長提議)

(17時01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내일은 지역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0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2分 散會)

○ 出席議員

- | | |
|-------|-------|
| 議 長 | 金 樂 雲 |
| 副 議 長 | 李 相 薰 |
| 議 員 | 李 慶 鎮 |
| 議 員 | 劉 燉 文 |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容 康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申 大 松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內 務 課 長	李 永 德
財 務 課 長	權 赫 昇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產 業 課 長	金 時 漢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山 林 課 長	李 基 椿
建 設 課 長	洪 基 杓
都 市 課 長	權 純 喆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社會指導課長	尹 澈 竣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李 京 植
專 門 委 員	辛 敎 善
議 事 係 長	咸 京 鎬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16面에 실음)

질 문 · 답 변 서

질 문	우 강 호 의원	답 변	평 창 군 수 (축산과장)
회 의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Pp. 6.7)		
<p>< 질문요지 ></p> <p>○ 축산물등급판정 기반시설 보완하면 도축장 운영자(평창기업)의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p>			

< 답 변 >

□ 우강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축산물등급판정 기반시설 보완후 도축장 운영권자의 예상수지 현황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붙임 : 평창 도축장 수지현황 1 부 끝

평창 도축장 수지현황

평창기업 도축장

○ 수 입 ('95년 기준)

(금액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공 과 금	도 축 세	40,880	소 :25,400원 × 1,200두 = 30,480 돼지: 1,300원 × 8,000두 = 10,400	군세입
	검 사 수 수 료	1,120	소 : 400원 × 1,200두 = 480 돼지: 80원 × 8,000두 = 640	도 세
	소 계	42,000		
경 영 자 수 입	도 장 사 용 료	96,000	소 :40,000원 × 1,200두 = 48,000 돼지: 6,000원 × 8,000두 = 48,000	
	운 반 비	52,000	소 :10,000원 × 1,200두 = 12,000 돼지: 5,000원 × 8,000두 = 40,000	
	골 발 및 해체비	108,000	소 :30,000원 × 1,200두 = 36,000 돼지: 9,000원 × 8,000두 = 72,000	
	부 산 물 처 리 비	23,200	소 :9,200원 × 1,200두 = 11,040 돼지:1,520원 × 8,000두 = 12,160	
	지 부분담금 및 조합비	22,000	소 :5,000원 × 1,200두 = 6,000 돼지:2,000원 × 8,000두 = 16,000	
	소 계	301,200		
총	계	343,200		

※ 평창기업 도축 제세 공과금

소(두당) ————— 125,000원
 (99,200원)
 돼지(두당) ————— 26,000원
 (24,620원)

○ 지 출 ('95년기준)

(금액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인 건 비	177,600	작업부 7명 × 1,200천원 × 12월 = 100,800 운전기사 2명 × 1,000" × 12월 = 24,000 지옥운반원 1명 × 1,000천원 × 12월 = 12,000 사무원 (A) 1명 × 1,000" × 12월 = 12,000 (B) 1명 × 500" × 12월 = 8,400 판공비 [조합장: 1,000" × 12월 = 12,000 [상 무: 700" × 12월 = 6,000 상여금 : 6명 × 200천원 × 2회 = 2,400	도급 - 년 소 : 1,200두 돼지 : 8,000두
차량 유지비	8,560	유류대 : 100천원 × 2대 × 12월 = 2,400 보험료 : 410 " × 2대 × 2회 = 1,640 검사료 : 100 " × 2대 = 200 기타경비: 180 " × 2대 × 12월 = 4,320	냉동차 : 2.5톤 종합.책임보험 자동차세.수리비등
수도 광열비	17,116	전기료 [작업장: 750천원 × 12월 = 9,000 [냉동실: 200 " × 12월 = 2,400 탕박연료 : 270천원 × 12월 = 3,240 수도료 [작업장: 160천원 × 12월 = 1,920 [냉동실: 35 " × 12월 = 420 수질검사료 : 34천원 × 4회 = 136	돼지 탕박용
폐수처리장 소요경비	23,800	환경기사(관리인겸) 1명 × 1,100천원 × 12월 = 13,200 약품대 : 600 " × 12월 = 7,200 폐기물수거료: 400천원 × 3회 = 1,200 난방료 [유류: 120 " × 5월 = 600 [화목: 400 " × 4차량 = 1,600	종균제 외 8종 폐수처리장보온용
통신 우편료	988	전화료 40천원 × 2대 × 12월 = 960 우편료 930원 × 30회 = 28	
사무실 유지비	1,020	등 유: 70천원 × 6월 = 420 사무비: 50 " × 12월 = 600	월 250ℓ (1ℓ : 280원)
출자금 배당	19,200	160,000 × 년리 12% = 19,200 ('90년 20명 × 8,000천원)	출자액 : 160,000

(금액단위:천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용자금상환	24,342	원금 ÷ 7년 = 17,142(2회차) 이자: 102,860천원 × 7% = 7,200	폐수처리시설 용자금 120,000천원(3년거치 7년상환.년리7%)
임차료	1,300	진입로 150m(소유주 5인)년1,300	3년마다 재계약
수용비	4,800	월 400천원 × 12월 = 4,800	소금 300포. 우의 30 벌(지육 상, 하차용) 마대 1,000장(스룻지 처리용) 지육운반 용기(가구) 80 개 리어카수리.지육거리 등
복리후생비	10,200	월 850천원 × 12월 = 10,200	임직원 식대.운전기사 담배.장갑.기타중식대
구독료	954	신문7종 × 6천원 × 12월 = 504 기타 : 390천원 × 1회 = 390 월간태백 5천원 × 12월 = 60	신문 및 일간지 파브르 곤충일기
교육훈련비	1,400	월 200천원 × 7회 = 1,400	위생교육(도지부,군) 환경교육 자율지도원 교육
경조사비	2,000	월 100천원 × 20회 = 2,000	조합원 경조사
경영자회의비	2,400	월 200 " × 12회 = 2,400	회의 및 교통비
도지부 분담금	3,000	월 250 " × 12월 = 3,000	
기타	6,000	월 500 " × 12회 = 6,000	하자보수 및 수리비
총계	304,680		
<p>○ 손익 = 15,720천원(이월금으로 적립) 수입: 301,200 - 지출: 304,680 = △3,480 출자금이자 19,200 - 3,480 = 15,720</p>			

시설 보완후 예상수지 현황

평창기업 도축장

○ 수 입 (시설 보완후)

(금액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공 과 금	도 축 세	91,800	소 : 25,400원 × 3,000두 = 76,200 돼지: 1,300원 × 12,000두 = 15,600	군세입
	검 사 수 수 료	2,160	소 : 400원 × 3,000두 = 1,200 돼지: 80원 × 12,000두 = 960	도 세
	소 계	93,960		
경 영 자 수 입	도 장 사 용 료	192,000	소 : 40,000원 × 3,000두 = 120,000 돼지: 6,000원 × 12,000두 = 72,000	
	운 반 비	90,000	소 : 10,000원 × 3,000두 = 30,000 돼지: 5,000원 × 12,000두 = 60,000	
	골발 및 해체비	198,000	소 : 30,000원 × 3,000두 = 90,000 돼지: 9,000원 × 12,000두 = 108,000	
	부산물 처리비	45,840	소 : 9,200원 × 3,000두 = 27,600 돼지: 1,520원 × 12,000두 = 18,240	
	지부분담금 및 조합비	39,000	소 : 5,000원 × 3,000두 = 15,000 돼지: 2,000원 × 12,000두 = 24,000	
	소 계	564,840		
총	계	658,800		

※ 평창기업 도축 제세 공과금

소(두당) ————— 125,000원
돼지(두당) ————— 26,000원

○ 지 출 (시설 보완후)

(금액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인 건 비	288,000	작업부 9명 × 1,800천원 × 12월 = 194,400 운전기사 2명 × 1,000" × 12월 = 24,000 지육운반원 1명 × 1,000천원 × 12월 = 12,000 관리인 1명 × 1,000천원 × 12월 = 12,000 사무원 (A) 1명 × 1,000" × 12월 = 12,000 (B) 1명 × 600" × 12월 = 7,200 판공비 [조합장: 1,000" × 12월 = 12,000 상 무: 700" × 12월 = 6,000 상여금 : 7명 × 300천원 × 4회 = 8,400	도급 - 년 □ 소 : 3,000두 □ 돼지: 12,000두
차량 유지비	10,320	유류대 : 200천원 × 2대 × 12월 = 4,000 보험료 : 450 " × 2대 × 2회 = 1,800 검사료 : 100 " × 2대 = 200 기타경비: 180 " × 2대 × 12월 = 4,320	냉동차 : 2.5톤 종합.책임보험 자동차세.수리비등
수도 광열비	33,016	전기료 [작업장: 900천원 × 12월 = 10,800 [냉동실: 800 " × 12월 = 9,600 탕박연료 : 700천원 × 12월 = 8,400 수도료 [작업장: 300천원 × 12월 = 3,600 [냉동실: 40 " × 12월 = 480 수질검사료 : 34천원 × 12회 = 136	돼지 탕박용
폐수처리장 소요경비	27,700	환경기사 1명 × 1,100천원 × 12월 = 13,200 약품대 : 900 " × 12월 = 10,800 폐기물수거료: 500천원 × 3회 = 1,500 난방료 [유류: 120 " × 5월 = 600 [화목: 400 " × 4차량 = 1,600	종균제 외 8종 폐수처리장보온용
통신 우편료	1,130	전화료 45천원 × 2대 × 12월 = 1,080 우편료 1 " × 50회 = 50	
사무실 유지비	1,392	등 유: 112천원 × 6월 = 672 사무비: 60 " × 12월 = 720	월 400ℓ (1ℓ : 280원)
출자금 배당	19,200	160,000 × 년리 12% = 19,200 ('90년 20명 × 8,000천원)	출자금 : 160,000

(금액단위:천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용자금 상환	23,142	원금 ÷ 7년 = 17,142(2회차) 이자: 85,714천원 × 7% = 6,000	폐수처리시설 용자금 120,000천원(3년거치 7년상환.년리7%)
임차료	1,300	진입로 150m(소유주 5인)년1,300	3년마다 재 계약
수용비	12,480	월 1,040천원 × 12월 = 12,480	소금 800포. 우의 80 벌(지육 상, 하차용) 마대 2,600장(스룻지 처리용) 지육운반 용기(가구) 160 개 리어카수리.지육거리등
복리 후생비	10,872	월 850천원 × 12월 = 10,200	임직원 식대.운전기사 담배.장갑.기타중식대
구독료	684	신문 7종 × 6천원 × 12월 = 504 월간지 1종 × 5 " × 12월 = 60 기 타 10천원 × 12월 = 120	
교육 훈련비	2,100	월 300천원 × 7회 = 2,100	위생교육(도지부,군) 환경교육 자율지도원 교육
경조사비	4,000	월 200천원 × 20회 = 4,000	조합원 경조사
경영자 회의비	3,600	월 300 " × 12회 = 3,600	회의 및 교통비
도지부 분담금	6,672	소 600원 × 3,120 = 1,872 돼지 400원 × 12,000 = 4,800	
기타	6,000	월 600천원 × 12회 = 7,200	하자보수 및 수리비
총계	451,608		
<p>○ 손익 = 113,232 수입: 564,840 - 지출 451,608 = 113,232</p>			

○ 수 입

(금액단위:천원)

	구 분	'95년 현황	시설 보완후	증 △ 감	비 고
공 과 금	도 축 세	40,880	91,800	50,920	군 세
	검 사 수 수 료	1,120	2,160	1,040	도 세
	소 계	42,000	93,960	51,960	
경 영 자 수 입	도 장 사 용 료	96,000	192,000	96,000	
	운 반 비	52,000	90,000	38,000	
	골발 및 해체비	108,000	198,000	90,000	
	부산물 처리비	23,200	45,840	22,640	
	지부분담금 및 조합비	22,000	39,000	17,000	
	소 계	301,200	564,840	263,640	
총	계	343,200	658,800	315,600	

○ 지 출

(금액단위:천원)

구 분	'95년 현황	시설 보완후	증 △ 감	비 고
인 건 비	177,600	288,000	110,400	
차량 유지비	8,560	10,320	1,760	
수도 광열비	17,116	33,016	15,900	
폐수 처리비	23,800	27,700	3,900	
통신 우편료	988	1,130	142	
사무실 유지비	1,020	1,392	372	
출자금 배당	19,200	19,200	0	
용자금 상환	24,342	23,142	△ 1,200	
임 차 료	1,300	1,300	0	
수 용 비	4,800	12,480	7,680	
복리 후생비	10,200	10,200	0	
구 독 료	954	684	△ 270	
교 육 훈련비	1,400	2,100	700	
경 조 사 비	2,000	4,000	2,000	
경영자 회의비	2,400	3,600	△ 1,200	
도지부 분담금	3,000	6,672	3,672	
기 타	6,000	6,000	0	
총 계	304,680	451,608	146,928	

○ 손익 대비 ——— 97,512

95년말 현재 ——— 15,720 (△3,480)
 시설 보완후 ——— 113,232 = 97,512